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혁태 교수 지도
석사학위논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교의신학적 비판

Dogmatic Criticism of ‘*Shinch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2015년 2월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박민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교의신학적 비판

Dogmatic Criticism of ‘*Shinch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지도교수 김 혁 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광 주 가 톨 릭 대 학 교 대 학 원
신 학 과 조 직 신 학 전 공
박 민 호

論 文 認 准 書

박민호 의 神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 김재홍 김재홍

副審 : 안세환 안세환

副審 : 김형태 김형태

2015년 2월 1일

光州가톨릭大學校大學院

일 리 두 기

1. 본고에 인용된 성경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간한 「성경」과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공동번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등이다.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의 「성경」을 뜻한다.
2. 성경의 장, 절 표기는 가톨릭의 표기방식을 따랐다(단, 인용문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대로 옮겼다).
3. 본고에 인용된 『가톨릭교회교리서』와 『교회법전』은 각주에서 저자와 출판사, 출판년도 표기를 하지 않고 해당 문헌의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였다.
4. 이만희의 저서들 중 인용 빈도가 높은 다음 책들은 각주 처음에만 저자명(이만희)과 책명을 표기하고, 이후에는 책명과 쪽수만 표기하였다.
『계시』(도서출판 신천지, 2005), 『계시록 완전해설』(도서출판 신천지, 2005), 『계시록의 진상』(도서출판 신천지, 1985), 『계시록의 진상Ⅱ』(도서출판 신천지, 1988),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이루어졌다』(도서출판 신천지, 2011), 『성도와 천국』(도서출판 신천지, 1995), 『성도와 천국』(도서출판 신천지, 1996), 『영행』(도서출판 신천지, 1996), 『예수그리스도의 행진』(도서출판 신천지, 2006), 『요한계시록의 실상』(도서출판 신천지, 2005), 『천지창조』(도서출판 신천지, 2007)
5. 인용문은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 등이 잘못되었어도 그대로 표기하였다.
6. 인용문에 굵은 글씨로 처리한 부분은 본 연구자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표시하였다.
7. 자료의 특성상 가톨릭교회에서는 생소한 용어들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경우, 이를 가톨릭 용어나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 안에 첨가하였다.

목 차

일러두기	i
목 차	ii
국문초록	iv
I. 서 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	4
III.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이해	7
1. 교주 이만희	7
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역사와 현황	11
3.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한 개신교 주요 교단의 결정사항	14
IV.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리에 대한 비판	15
1. 신천지 교리의 형식적 틀	15
1) 신천지의 시대구분	15
2) 대칭(對稱)구조의 교리	17
2. 계시론에 대한 비판	26
1) ‘두 종류의 계시’ 교리	26
2) 직통 계시 주장	29
3) 소위 ‘요한계시록의 실상’	34
3. 성경관에 대한 비판	40
1)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약 6천년이라는 주장의 의도	40
2) ‘말씀의 짝’ 교리	40
3) 비유풀이	42
4) 「개역한글」 성경만이 참되다는 주장에 대하여	48
5) 올바른 성경해석	50
4. 그리스도론에 대한 비판	52
1) 양자설(Adoptianismus)적 그리스도론	52

2) 시대별 목자(구원자) 교리	53
3) 동방의 의인 교리에 대하여	56
5. 성령론에 대한 비판	62
1)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	62
2) 인간 보혜사 교리에 대하여	64
6.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	68
1) ‘삼위일체’ 라는 용어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대하여	69
2)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70
3)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	72
7.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비판	74
1)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	74
2) 신인합일과 육체영생 교리	76
3) ‘14만 4천 명’ 교리	80
4) 배도-멸망-구원의 ‘구원노정’ 교리	84
5)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90
V. 결 론	94
부 록	98
참고문헌	116
Abstract	12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교의신학적 비판

박 민 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조직신학 전공

김 혁 태 교수 지도

최근 교회 안팎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으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신천지는 성경공부를 빌미로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교리들을 주입한다. 본고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교의신학적 비판을 통해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신천지 교리는 ‘영-육’, ‘선-악’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상의 시대를 임의로 구분하여 현 시대를 ‘재림 시대’, ‘계시록 완성 시대’로 설정한다. 하느님께서 시대별로 구원자를 선택하셔서 ‘배도-멸망-구원’의 순리로 창조와 재창조를 거듭하신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 자체가 처음부터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이다.

신천지 교리는 교주 이만희가 받았다는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는 그리스도교 계시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된 계시가 아니다. 또 그가 직접 보았다는 ‘요한 묵시록의 실상’의 실체는 이만희가 속해 있던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인데, 이는 이만희가 요한 묵시록의 내용을 ‘증거장막성전’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는 ‘성경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비유라고 전제하고 소위 ‘비유풀이’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지만 이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자의적으로 도출해내는 그릇된 성경해석 방법이다.

그리스도론을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인 예수님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초기 그리스도교 이단인 ‘양자설’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나아가 신천지는 ‘시대별 목자’ 교리를 통해 이만희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 신약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목자로 신격화한다. 이 같은 교주 신격화가 신천지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신천지의 성령론을 살펴보면, 신천지는 성령을 단순히 ‘거룩한 영’으로 이해하며 천사와 순교자들의 영혼도 성령이라는 주장을 한다. 게다가 성령을 임의로 ‘일반 성령’과 ‘보혜사 성령’(파라클레토스)으로 구분하고, 요한복음의 ‘파라클레토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 임한 ‘육적 보혜사’로 여긴다. 이는 하느님이신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교의와는 관련이 없는 그릇된 주장이다.

신천지의 그릇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지 세 객체가 한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해하는 신천지의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서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한 하느님이시다’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과 전혀 다르다. 신천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 시대에는 ‘이긴 자’(이만희) 안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신천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신천지는 구원론과 종말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나 그리스도교 교의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이만희가 받은 계시를 배우고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론이다. 이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양립될 수 없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도-멸망-구원’의 노정 교리와 ‘신인합일·육체 영생’ 교리는

각각 테살로니카 2서 2장과 요한 묵시록 20장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근거하며, ‘14만 4천 명’ 교리 역시 요한 묵시록 7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잘못된 교리이다.

이처럼 신천지 교리는 그 전제가 되는 형식적인 틀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특히 신천지의 교리는 기존에 있던 이단·사이비종파들의 교리와 매우 유사하며, 모든 교리가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이며 사이비 종교이다.

국내·외에서 생겨난 각종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명확하고 꾸준하게 교육하여 신자들 스스로가 먼저 이단·사이비들의 접근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각도에서 이단·사이비 종파들에 대해 연구하여 가톨릭 신앙과 신자들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는 초세기부터 늘 이단들이 존재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특히 국내에서 자생한 신흥종교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1984년 설립)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가톨릭 신자들 뿐 아니라 몇몇 성직자들까지도 이 신흥종교에 빠져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각 교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문들을 내놓았지만 신천지로 인한 교회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성경공부를 빌미로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수개월에 걸친 세뇌교육을 시킴으로써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릇된 교리들을 주입시킨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천지에 정식으로 입교하게 되면 교회활동과 포교에 온전히 매달리도록 하며 이로 인한 가정불화, 이혼, 가출, 학업포기 등의 사회문제까지도 야기시킨다.

2009년 여름에 신천지 내(內) 12개 지파의 강사와 전도사들이 모인 연합하계수련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교주 이만희는 “제일 말씀이 없는 조직이 ‘통일교’이다. 거기에는 예배도 안 보고 성경도 없다. 통일교를 우리가 잡아먹어야 한다. 그 다음 차례가 천주교다. 천주교도 우리가 잡아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역사다”¹⁾라고 말했다.

‘추수꾼 전략’, ‘위장교회 설립’, ‘성직자 사칭’ 등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천지의 포교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포교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며 상당부분 개신교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이른바 ‘이단 사역자’들이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며 그들의 포교활동에 대처하는 각종 서적과 자료들을 꾸준히 발간

1) 신천지총회교육부, “신 26년 12지파 강사 전도사 연합 하계수련회” 자료 중 ‘총회장님의 최근 의중’을 <http://downwave.blog.me/150162080048>(검색일:2013.12.4) 에서 재인용.

하고 있고, 지역별로 마련된 ‘이단 상담소’에서는 전문 상담가들이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천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천지의 주요 교리들을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신천지 교리가 어떤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왜 그리스도교적이지 못한지를 밝히고, 신천지의 교리가 교주를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신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이미 신천지에 빠진 이들에게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밝혀 신천지가 이단이며 사이비종교임을 증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왜 신천지가 이단이며 사이비 종교인지를 밝히겠다.

III장에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 알아보며 이단들을 전전한 그의 신앙전력(前歷)과 그가 창립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결의한 바를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I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천지의 교리를 다루며 비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만희의 저서들과 신천지 측에서 포교활동에 사용하는 자료들이 주장하는 바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겠다. 먼저 신천지 교리의 형식적인 틀을 살펴보고, 이후에 계시론, 성경관,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의 범주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면서 그 주장들이 성경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교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비판에 덧붙여 각 주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토대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겠다. 이로써 신천지의 교리가 창립자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신격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부록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한국 내 그리스도교계 이단들의 계보도와 신천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신천지가 이만희를 신격화 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들을 첨부하겠다.

II.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

신천지 교리의 이단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단’과 ‘사이비’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서는 이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가톨릭, 개신교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단(異端)’을 “일정한 종교를 믿는 처지에서 그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및 다른 종교를 일컫는 정통 이외의 설”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후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³⁾을 이단(haeresis)이라고 일컫는다. 교회법에 따르면 이단자(haereticus)는 자동 처벌의 과문 제재를 받고⁴⁾, 교회 직무에서 해임되며⁵⁾, 또한 성품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⁶⁾이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된다⁷⁾.

이와 같이 이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정의에 따르면 이단의 기준은 세례여부와도 관련이 있는데, 본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그 교주(창립자)와 집단 자체가 가톨릭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톨릭교회의 이단이라고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거부하고 신천지에 입교한 경우에는 그들이 교회법이 규정하는 ‘이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15-5차 임원회에서 “이단이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⁸⁾고 정의하면서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 “사도신조(신

2) “이단”,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2001. 1986.

3)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089항; 교회법 제751조.

4) 교회법 제1364조 제1항 참조.

5) 교회법 제194조 제1항 제2호 참조.

6) 교회법 제1041조 제2항 참조.

7) 교회법 제1184조 제1항 제1호 참조.

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자료Ⅱ』, 도서출판 한국교회문화사, 2007, 6.

경)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종교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이다”⁹⁾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총회는 “과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요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¹⁰⁾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이비(似而非)’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이비’는 “겉으로는 제법 비슷하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름”¹¹⁾을 이르는 말이다.

‘사이비’라는 용어는 ‘이단’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로서, 가톨릭교회교리서나 교회법전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가톨릭 대사전』은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용어로 ‘신종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종교’는 ‘기성종교’나 ‘전통종교’의 상대적 개념으로 새롭게 발생한 종교라는 의미에서 ‘신흥종교’라고도 하며, 명확한 개념정의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역사가 짧고, 교리·의례·조직 체계의 제도화나 사회적 인정도가 낮으며, 불안정한 종교집단”¹²⁾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앞서 언급한 한기총은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¹³⁾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는 ‘사이비’를 “과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에 부수되는 주요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¹⁴⁾라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종교집단으로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9) 같은 책, 5-6.

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편, 『종합 이단·사이비 연구보고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85.

11) “사이비”, 국어국문학회, 앞의 책, 1270.

12) “신종교”, 『한국가톨릭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462 참조.

1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앞의 책, 6.

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편, 앞의 책, 285.

장막성전'은 개신교의 기준에서 '이단'이며 '사이비'라고 분명히 규정되지만, 가톨릭교회의 기준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가톨릭교회의)이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사 그리스도교', '신흥종교', '사이비종교'로 분류하여 지칭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천지가 겉으로는 '예수교', '정통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릇된 성경해석과 교리들을 주장하며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고 현저하게 왜곡하면서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참고자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천지를 '이단'인 동시에 '사이비' 집단으로 칭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III.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이해

1. 교주 이만희

신천지에 대한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창립자이자 교주인 이만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만희의 출생과 어린 시절, 종교체험과 신앙전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만희(李萬熙)는 1931년 9월 15일에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에서 아버지 이재문과 어머니 고상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6년에 펴낸 저서 『영핵』¹⁵⁾의 ‘신천지교회 이만희의 신앙 간증(요약)’ 부분에서 자신의 출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인은 경북 청도군 출신으로 3대 외동아들이었던 나의 아버지의 12아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기 전 매일 기도생활을 하시던 나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몽중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 다시 하늘이 열리더니 빛이 나와 나의 어머니에게 비추는 것을 보시고 나의 이름을 “빛”이라는 뜻을 지닌 만희(萬熙)라고 지어 두셨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이름이 되었다.¹⁶⁾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 그가 제각(祭閣)¹⁷⁾에서 태어났다는 교육을 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만희가 주장하는 ‘매일 기도생활을 하시던 나의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⁸⁾ 실제로 이만희가 침례를 받은 것은 17세 때인 1948년의 일로, 그 이전까지 이만희는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세 때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형 집에 기거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러던 중 집 앞에 사는 외국 선교사의 소개로 창경원 앞에 위치

15) 이 책은 1996년 5월에 이만희가 ‘기독교계의 반성과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술하였으며, 서문 ‘200만 기독교인들에게 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이단성 논란에 대한 반문, 자신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한 성경구절, 신천지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계에 대한 당부 등을 담고 있다.

16) 이만희, 『영핵』, 75.

17)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18) <http://blog.naver.com/knw1022/10037071242>(검색일:2013.11.8) 참조.

한 한 천막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¹⁹⁾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²⁰⁾ 이후 이만희 자신과 가족들에게 환난이 계속되어²¹⁾ 자살을 결심하고 산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인물을 만나고 나서(이만희는 하느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자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풍각 장로교회를 찾았고, 그 다음 날에는 산에서 혈서를 썼다. 이 체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세상을 버릴 목적으로 산을 향했다. 산으로 가는 도중에 희고 빛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고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후 얼마쯤 지났을까 일어나보니 그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고 그때 감동받은 나는 충을 버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본 이적 기사를 나는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현세의 모든 사람들이 본 이적과 이상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더 크다.”라고.

나는 처음 환상을 체험한 그날 저녁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고 다음날 높은 산상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신앙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²²⁾

1957년에 이만희는 전도관(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교주 박태선은 1990년에 사망)에 입교하였다. 그 당시 전도관은 이미 기성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²³⁾ 혼음교리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

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앞의 책, 111 참조.

20)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군의 심정(요한복음)과 학생문장독본을 밤마다 한 장씩 읽고 잤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요일은 높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이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 중 큰 별(천사)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 별은 나를 북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이 일은 삼일 동안 계속되었다.” 『영핵』, 75.

21) 이만희와 함께 신천지를 창립한 홍종효는 이만희가 한센병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였다. 편집부, 『한국의 신흥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2002, 190 참조.

22) 『영핵』, 75.

23) 창동교회의 장로였던 박태선은 1955년에 신흥종교를 창립하였으며, 1955년 7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의 운동이 사이비운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56년 2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1956년 9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

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만희가 전도관에 입교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²⁴⁾ 이만희 자신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이적과 계시를 따라’ 전도관에 입교하였다고 증언한다.

그 후 전도관을 탈퇴한 이만희는 1967년에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교주 유재열)’²⁵⁾에 입교하였다. 이곳은 전도관에서 이탈한 이들 수 백 세대가 이주하여 집단 취락을 형성한 곳이었다. 이만희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가게 된 계기 역시 ‘성령과 계시에 이끌려’ 간 것이다. 신천지의 교리는 이 ‘장막성전’의 교리와 유사하며,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첫 장막, 예비장막’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세상에 속했던 첫 장막성전이 사라진 뒤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신천지증거 장막성전’이라고 말한다. 신천지와 이만희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곳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이만희는 이곳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신천지는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의 분파나 아류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에서는 1969년 11월 30일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이탈하게 되었다. 이만희도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을 탈퇴하였고²⁶⁾, 1978년경에는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에서 ‘솔로몬’이라는 영명²⁷⁾으로 활동하던 백만봉이 설립한 ‘재창조교회’에 들어가서 백만봉을 ‘주님’으로 모시며 12사도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신천지에서는 이 곳을 ‘사데교회(사르디스 교회: 묵시 3장 참조)’라고 부른다. 그러나 재창조교회에서 주장한 1980년 3월 13일의 시한부 종말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만희는 그 다음날 또 다시 이

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편, 앞의 책, 2011, 23 참조.

24) 한센병 치료를 위해 ‘생명수’로 치유를 베푼다는 전도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5)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은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을 모체로 하여 1966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유재열의 나이는 17세였으며 ‘어린 중’으로 칭해졌다.

26) 이만희는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에서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다 털렸다고 주장하면서 1971년 9월에 유재열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27)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에서 말하는 ‘영명(靈名)’은 그들의 신령이 임한 사람에게 붙여진다. 예를 들면, 유재열은 삼손, 유재열의 부친인 유인구는 임마누엘, 백만봉은 솔로몬, 신광일은 여호수아 등. 탁명환, 『한국의 신흥종교Ⅲ(개정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92, 78.

곳을 탈퇴한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신천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만희는 유재열이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을 기성교회 목사들에게 위임한 사건에 대해 편지를 통하여 비판하다가 유재열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980년 10월 27일에 구속이 되고, 1981년 2월 2일에 선고유예로 풀려났다.²⁸⁾

이만희는 1984년 2월 7일에 선고유예기간이 끝난 후, 배도와 멸망의 일을 알리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종교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을 써서 배포하였다. 그는 2테살 2장 1절부터 3절²⁹⁾을 근거로 들어 ‘구원의 노정순리’를 ‘배도-멸망-구원’이라고 현재까지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오는 배도자는 하느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 장막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 유재열이고, 멸망자(가톨릭 성경: 무법자)는 장막성전을 이어받아 개혁(정화)하였던 장로교 목사들과 오평호, 그리고 자기 자신(이만희)은 배도와 멸망 뒤에 오는 구원을 이루는 자라는 것이다.

1984년 2월 21일에 이만희는 충남 계룡산 국사봉에 입산하여 말씀을 받아 두 권의 책을 쓰고 3월 14일에 산상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4월 2일에 하산하여 6월 3일에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동산아파트 지하실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신천지 성헌’을 발표하면서 19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

28) 임웅기,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59. 신천지에서는 이 사건을 묵시 11장 9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사흘 반’(삼일 반)의 실상이라고 가르친다. 징역살이와 선고유예로 이만희와 홍종효가 삼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묵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었다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다시 일어난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1980년 10월부터 1981년 2월까지를 해(年)가 바뀌었으니 1년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2년 반의 선고유예 기간을 합쳐서 3년 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만희, 『천국비밀-계시록의 진상』, 165-167 참조.

29)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2테살 2,1-3)

전'의 창립일로 발표하였다. 이만희는 '대한 기독교 증거장막성전', '재창조 교회' 동료인 홍종효와 함께 신천지를 창립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요한 묵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자처하였는데, 홍종효는 1987년에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며 이만희와 결별하였고, 2012년에 사망하였다.

또 이만희는 1985년에 통일교 아류인 '생명교회' 출신의 김건남, 김병희와 함께 신천지 교리의 뿌리격인 『신탄(神誕)』을 출간하기도 하였다.³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이만희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비롯해 전도관, 장막성전, 재창조교회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건남, 김병희 등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교 계통³¹⁾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은 검증되지 않은 신비체험과 각종 이단·사이비종교들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우리나라의 이단·사이비종교의 계보를 이어 발생한 또 하나의 이단·사이비종교라고 규정한다.

현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파라클리토-성령)', '이 시대의 구원자', '약속의 목자', '(요한 묵시록의)이긴자', '만유의 대주재' 등으로 칭하며, 신도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이만희가 죽지 않고 육체로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³²⁾

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역사와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천지는 1984년 9월 24일에 '성헌(聖憲)'을 발표하면서 1984년 3월 14일을 그 설립일로 발표하였다.³³⁾ 그 설립을 두고 이만희는 1996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영핵(靈核)』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새 예루살렘성전)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이다. (중략)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의 약속대로 대한민국에

30) 현재 이만희는 이 책을 부정하고 있으나 분명히 『신탄』은 신천지 초기에 교리서로 사용되었으며, 1997년에 발간된 『신천지 발전사』라는 화보집에도 신천지 도서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31) 통일교 교주 문선명과 전도관 교주 박태선은 모두 한국 그리스도교 이단의 원조로 여겨지는 김백문의 제자이다.

32)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 교리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3) 신천지에서는 1984년을 원년으로 '신천기'라는 자체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임했으니 대한민국 만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릴지어다. 이제 신앙의 종주국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새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되었다”³⁴⁾라며 자찬하였다.

같은 해 6월 3일에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283-13, 관양동 172-1로 교회를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제일쇼핑 4층에 총회 본부를 두고 있다. 1986년부터는 전국에 지교회(枝教會)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9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990년 6월 12일에는 서울시 방배2동에 ‘무료성경신학원’³⁵⁾을 설립하였다. 기존에는 ‘신학원’으로 칭하던 신천지의 교육 장소는 현재 ‘시온기독교선교센터’(약칭 ‘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국내·외에 3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신천지(新天地)’라는 명칭은 ‘새 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데, 이만희가 직접 계시를 통해 명령을 받았으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주장한다.³⁶⁾

신천지의 조직 구성은 교주 이만희가 ‘총회장’³⁷⁾으로 있고, 그 아래에 고위직으로서 본부 ‘7교육장’³⁸⁾과 전국 각지에 ‘12지파장’, 그리고 본부 성전에 ‘중앙 24실무 장로’³⁹⁾가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을 두고 신천지에서는 “편의에 의해 갖춘 모양이 아니며, 보여준 그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룬 것이다”⁴⁰⁾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천지 창립 11주년을 맞는 1995년에 성경대로 하늘보좌가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7교육장과 24장로 중 상당수가 신천지를 탈퇴하거나 신흥종파를 만들어 이탈하면서 일부만 신천지에 남아있다.

34) 『영핵』, 77. 이 책에서 이만희는 “우리나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우두머리의 나라 종교 종주국이 된다. 이것이 신천지이다. 이 신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불,선 3도가 예언하였다. 6천년 종교 역사도 결국 이 신천지를 말한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정부도 신천지를 세계에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책, 79 참조.

35) ‘무료성경신학원’은 신천지를 지칭하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36) 이만희, 『계시록의 진상』, 78 참조.

37) 이만희는 ‘총회장’, ‘보혜사’, ‘선생님’ 등으로 호칭된다.

38) 요한 묵시록의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천사’(묵시4,5; 5,6 등)에 해당하며 신천지의 모든 교육과 기획, 감사를 담당한다.

39) 요한 묵시록의 ‘원로 스물네 명’(묵시 4,4)에 해당하며 24개 부서의 행정을 담당한다.

40) 『계시록의 진상』, 78.

12개의 지파⁴¹⁾는 지파 성전을 중심으로 12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각 지파마다 실무장로, 원로장로, 권사, 집사, 문도(청년, 학생), 평신도(미 직분자), 신학생(교육중인 학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인들의 소속을 구분 짓는 조직으로 전도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의 네 부서⁴²⁾가 있다.

또한 신학원(센터)은 전국 신학원 총원장, 각 지파 수원장(원장 대표), 원장(지파소속 신학원 원장), 교육강사(신학원 강사, 교사, 선교사), 교육전도사 등으로 구성된다.⁴³⁾

신천지에서 발간한 『새신자 교육교재』에 따르면 “신천지 위계질서는 상하 직분 순리에 입각”하며, “교회의 발전과 평화는 위계질서에 입각한 절대 순종에 있다”⁴⁴⁾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신천지 조직의 특성은 상하 위계질서와 보고체계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의 각 지파 산하에는 지교회들이 있으며, 입교 전에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장소인 복음방(센터에서 교육받기 전에 2-3명의 소그룹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과 센터, 기성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는 위장교회들이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로 위장한 ‘사단법인 만남’⁴⁵⁾은 전국에 6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고, 신천지의 대외적 홍보와 대내적 언론 호도를 위해 ‘천지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신천지의 교세는 설립이후 20여년 간 그 신도수가 5만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교세가 급증하여⁴⁶⁾ 2013년 말 현재는 11만명 이상의 신도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1) 2014년 현재 신천지의 전국 12지파는 다음과 같다. 요한지파(본부, 서울), 베드로지파(전남, 광주), 야고보지파(경남, 부산), 안드레지파(경남, 부산), 다대오지파(경북, 대구), 빌립지파(강원, 원주), 시몬지파(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 바돌로매지파(서울 강서, 부천, 김포), 마태지파(인천), 맛디아지파(충청, 대전), 서울야고보지파(서울, 경기, 의정부), 도마지파(전북, 전주)

42) 요한 묵시록의 ‘네 생물’(묵시 4,6,8 등)에 해당한다.

43) 신천지 문화부, 『신천지 발전사』, 도서출판 신천지, 1997, 4-5 참조.

44)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새신자 교육교재』, 도서출판 신천지, 1999, 별첨6-7.

45) ‘(사)만남’의 대표는 신천지 압구정센터의 원장인 김남희이며, 이만희가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만남’은 신천지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정해왔으나 2012년 9월 16일에 열린 ‘제6회 하늘문화예술제전’(4년마다 개최)을 신천지와 만남의 연합체전으로 개최하고, 이만희와 김남희가 동시입장을 하고 왕관을 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46) 소위 ‘추수꾼 전략’, ‘산 옮기기 전략’ 등의 치밀한 포교방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한 개신교 주요 교단의 결정사항

개신교계의 각 교단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0차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80차 총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제54차 총회(1999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88차 총회(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55차 총회(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제43차 총회(2008년) 등에서도 이단으로 결의하였다.⁴⁷⁾

특히 1995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80차 총회는 신천지를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⁴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같은 해에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0차 총회는 신천지에 대한 연구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당시 교주 유재열) 계열로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종말론 등 대부분의 교리는 도저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단이다.”⁴⁹⁾

4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앞의 책, 173 참조.

48) 같은 책, 113.

4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편, 앞의 책, 155.

IV.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리에 대한 비판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교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과 계시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러기 위해 신천지의 교리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신천지의 교리들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의 교리가 대부분 이원론적이라는 것이다. ‘선-악’, ‘영-육’, ‘초림(初臨)-재림(再臨)’, ‘하나님(하느님)-사탄(사탄)’, ‘구원-비구원’ 등으로 이분화 되어 짝을 이루거나 대립구도를 이루는 시각이 신천지 교리에 깊이 스며있다. 그들은 세계를 ‘영계(靈界)’와 ‘육계(肉界)’로 나누고, 다시 이를 각각 ‘하느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나눈다. 이것이 신천지 교리의 바탕이 되는 세계관이다.

사실 신천지의 교리 자체는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⁵⁰⁾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신천지 교리의 형식적인 틀을 살펴보고, 기존의 신학범주에 해당하는 신천지의 교리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1. 신천지 교리의 형식적 틀

신천지 교리는 대부분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식적 틀에 대한 전(前)이해 없이는 신천지 교리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신천지 교리의 바탕이 되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신천지의 시대구분

신천지에서는 크게 세 부분, 구체적으로는 여덟 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시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는 ‘구약시대 - 초림(初臨)시대 - 재림(再臨)시대’, ‘육적 이스라엘 시대 - 영적 이스라엘 시대 - 영적 새 이

50)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는 1995년에 제80차 총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스라엘 시대'로 구분하며, 현재는 '재림시대'이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 '계시록 완성 시대'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시대구분을 흔히 '삼시대론(三時代論)'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구약시대 - 신약시대 - 성약시대'로 시대를 구분하거나⁵¹⁾, '성부시대 - 성자시대 - 성령시대'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는⁵²⁾ 다른 이단 부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하면서 주장하는 바는, 구약의 언약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고(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의 계시가 열림), 신약의 언약이 재림시대에 성취되었다는(신약에 약속된 목자가 오심으로써 신약의 계시가 열림) 것이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대칭구조의 교리를 살펴보면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여덟 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교리는 정식으로 신천지 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전 단계인 복음방 교육과정이나 신학원(센터) 교육과정 중 초등과정에서도 초기에 가르치는 것인데, 그만큼 신천지의 교리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교리이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며, 이 역사가 8개의 시대로 나뉘어 있다고 가르친다. 이 8개의 시대는 '창세시대 - 출애굽 율법시대 - 사사시대 - 왕권시대 - 선지시대 - 하늘복음시대 - 서신시대 - 계시록 완성(재창조 계시)시대'이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전혀 성경의 역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왕권시대와 선지시대(예언자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왕조와 구분된 시대에 활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옳지 않다. 신천지에서 '율법시대'의 목자로 꼽는 모세 역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예언자들은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활동하였으며, 왕정시대 이후에 예언자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에 예언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⁵³⁾ 또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유배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신천지의 성경이해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잘

51) 통일교(문선명)나 영생교(조희성) 등에서 주장한다.

52)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 장길자), JMS(정명석) 등에서 주장한다.

53) A. 지를란다, 『구약성경 입문2』, 성염 역, 바오로딸, 2010⁴⁾, 13-14 참조.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시대를 무리하게 구분하는 목적은 시대별 목자론으로 이어져서 지금이 ‘계시록 시대’이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목자인 이만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시대에는 약속의 목자와 약속의 성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참 신앙인이요 구원받을 자이며, 말씀을 보고 깨달아 믿고 지켜 행한 자이다.⁵⁴⁾

2) 대칭(對稱)구조의 교리

(1) 창조와 재창조 (창조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대칭구조의 교리로 ‘창조와 재창조’ 교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창세 이래로 창조와 재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영계와 육계를 창조하시고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기존의 세계와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와 선민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만희의 저서 『천지창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하나님은 영계와 육계를 창조하신 이래 두 세계가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 사람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⁵⁵⁾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아담의 배도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떠나가야 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 시대마다 끊임없이 재창조의 역사를 해오셨다. 택한 선민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함께할 수 없으므로 버리고, 새로운 선민을 창조하여 일하셨다.⁵⁶⁾

54) 이만희, 『성도와 천국』, 227.

55) 이만희, 『천지창조』, 18.

그리고 이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路程)은 창세기 1장의 원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만희의 저서 『성도와 천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창조는 창세기 1장과 같은 원리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성도는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깨달아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⁵⁷⁾

그가 말하는 창세기 1장의 원리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세계를 심판하여 없애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이만희는 성경에 담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창조와 재창조라고 말한다.⁵⁸⁾ 이런 방식으로 창조-배도-멸망-재창조의 과정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을 거쳐 이 시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신천지의 창조와 재창조 교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부패하고 변질될 때마다 그 세계를 심판하여 없애시고 재창조의 일을 하셨다. 아담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신 후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을 차례로 들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재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도 하나같이 배도하고 변질되었다.⁵⁹⁾

신천지의 이러한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택한 선민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함께할 수 없으므로 버리시고, 새로운 선민을 창조하여 일하신다”⁶⁰⁾는 이만희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와 타락 때문에 버리신다는 주장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56) 『천지창조』, 48.

57) 『성도와 천국』 61.

58) “성경전서에 담긴 내용을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한다면, 목자 선택, 선민과의 언약과 배도, 이방에 의한 선민 멸망, 새 목자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창조와 재창조이다.” 『천지창조』, 18-19.

59) 『천지창조』, 171.

60) 『천지창조』, 52.

백성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는 구약성경이 수없이 증언하는 바이다.

야곱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악행들을 구름처럼, 너의 죄악들을 안개처럼 쓸어버렸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사 44,21-22)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하고 말하였지. 여인에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 49,14-15)

너희가 이민족들에게 팔린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에 원수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재앙을 내리신 주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열 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주시리라. (바룩 4,6.27-29)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신명 4,31)

신천지의 ‘창조와 재창조’ 교리에서 드러나는 또 한 가지 오류는 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을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교리가 담고 있는 의도이기도 하다. 아담 세계에서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그들이 말하는 ‘계시록 완성시대, 재림 시대, 신천지 시대’가 창조되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영적 이스라엘’로 칭해지는 기성교회가 부패하여 그 시대가 끝났고, 자칭 ‘영적 새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재림 예수님께서서는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끝내시고(계 6장)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계 7장, 14장).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 2천년 동안 지속된 영적 이스라엘은 추수 때인 세상 끝 곧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따르면, 천사가 14만 4천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에게 인을 쳐서[인장을 찍어서] 열두 지파를 재창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새 이스라엘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한 목자와 약속한 성전 그리고 약속한 신학교를 요한계시록에 알려주셨다.⁶¹⁾

바로 이것이 신천지의 '창조와 재창조' 교리의 목적이다.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칭 '약속한 목자(이만희)'와 '약속한 성전(신천지교회)'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인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창조를 말하면서 이만희를 창조의 완성시대에 등장한 '약속한 목자'로 주장하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그리스도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인해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그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에서 선을 끌어내신다고 가르친다.⁶²⁾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3항은 원조들이 “타락한 후에는 구속(救贖)을 약속하시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셨고(창세 3,15 참조), 선업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로마 2,6-7 참조) 끊임없이 인류를 돌보셨다”고 말한다. 또한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그분의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고통 받으신 모든 것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⁶³⁾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창조된다.⁶⁴⁾

61) 『천지창조』, 172-173.

62)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11항 참조.

63) 『가톨릭교회교리서』 제518항.

(2) 옛 언약과 새 언약

신천지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도 앞서 살펴본 ‘창조와 재창조’의 구조와 유사하다. 얼핏 이 교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약 신약’ 개념과 전혀 다르다.

먼저 이에 대한 이만희의 증언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서는 아담 때 이후 시대마다 선민과 언약을 해오셨으며, 백성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새로운 목자와 선민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하셨다. 그 예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노아를 택하여 언약하셨다. 아담과의 언약이 첫 언약이라면 노아와의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계마저 부패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하셨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이 다시 새 언약이 되셨다. 이러한 일은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 예수님 초림 때까지 되풀이되었다.⁶⁵⁾

간단히 말하자면,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마다 그 시대의 목자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면서 그 이전시대의 언약은 옛 언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신천지의 언약교리에 따르면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선민과 맺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세의 자손, 여호수아의 자손이 비록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민족인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거듭 계약을 맺으셨는데,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타락하여 이사악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사악이 타락하여 야곱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하느님과 아브라함(창세 15장 참조), 하느님과 이사악(창세 26장 참조), 하느님과 야곱(창세 28장 참조) 사이에 3대(代)에 걸쳐 맺어진 계약은 연속선상에서 갱신된 것이지 앞의 계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64) 로마 6,3-4 참조.

65) 『천지창조』, 177.

만일 신천지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은 하느님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느님께서 시대마다 새로운 목자와 선민을 택하여 상대적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신천지의 이러한 주장 역시 이만희와 신천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언약교리에 따르면 구약성경 안에도 수많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조가 반복된다. 이 구조는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계약에서 끝나지 않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의 ‘새 언약’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이와 같은 신천지의 언약교리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하느님께서 구약의 성조들과 맺으신 계약들은 각각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점진적인 계시과정이다.⁶⁶⁾ 다시 말해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인간과 거듭 계약을 맺으신 것은 계약의 갱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창세 17,7)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성조들과 맺으신 계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계약으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⁶⁷⁾이다.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옛 계약은 결코 철회된 바가 없다”⁶⁸⁾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다고 하여 친히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계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⁶⁹⁾

진정한 새 계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의 계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계약이다.⁷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고되었

66) 『가톨릭교회교리서』, 제69항 참조.

67) 같은 책, 제71항 참조.

68) 같은 책, 제121항.

69)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 10,23); 하느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07항; 제212항, 제214항, 제489항. 제1062항-제1063항, 제1334항, 제2577항 참조.

70) 히브 8, 13 참조.

고⁷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계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하고 영원한 계약이다.⁷²⁾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헌장』 4항은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 계약’ 이후에 예수님의 ‘새 계약’을 ‘옛 계약’으로 만드는 또 다른 새 계약이 있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그리스도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3)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 『천지창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부패한 이전 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창조하실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새 목자를 선택하신다. 이 사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에게 만물을 맡겨 다스리게 하시며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도하였을 때에는 가차(假借)없이 그를 떠나셨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노아를 택하시고 부패한 아담의 후예들을 홍수로 멸하셨다. 아담으로 시작한 세계를 없애지는 처음 하늘(先天)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창조한 노아의 세계는 새 하늘(後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담은 사명이 끝난 선천의 지도자이며 노아는 새 시대를 인도할 새 치리자이다.⁷³⁾

이는 신천지의 시대 구분,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논리에 따라 이전 세계는 선천(先天)이고 재창조된 세계는 후천(後天)이라는 주장이다. 선천과 후천의 구분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창조와 재창조 노정과 함께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다.

선천과 후천의 구분은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론과도 연결된다. 이만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71) 이사 2,2-4; 예레 31,31-34; 히브 10,16 참조.

72) 히브 13,20; 『가톨릭교회교리서』, 제73항 참조.

73) 『천지창조』, 153.

하나님께서 부패한 노아의 세계를 떠나 모세에게로 가신 결과, 선천 세계인 노아의 세계는 빛과 생명이 없는 밤이 되고, 후천 세계인 모세의 세계는 빛과 생명이 있는 낮이 되었다.⁷⁴⁾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그리스도교를 선천으로, 신천지교회를 후천으로 인식시키면서 선천인 기성교회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고 후천인 신천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4) 정통(正統)과 이단(異端)

신천지의 선천과 후천교리는 ‘정통과 이단’ 구분으로 발전한다. 앞에서 살펴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의 ‘정통과 이단’도 시대구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만희는 『천지창조』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정통과 이단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고 정통이라고 하면 정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과 이단은 무엇인가? ⁷⁵⁾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정통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요 이단은 마귀와 하나 된 자다. (중략) 이 땅에 있던 최초의 정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떠나 노아에게 가셨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통이 아니었다. (중략)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새로운 정통이 되었다. (중략)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정통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리고 사탄과 하나 된 자는 이단이다.⁷⁶⁾

넓은 선천과 새로운 후천 중 어디가 정통이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새로

74) 같은 책, 155.

75) 같은 책, 354.

76) 같은 책, 354-357.

창조하신 후천 세계다.⁷⁷⁾

위에 인용한 이만희의 주장에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정통과 이단’ 구분만 놓고 보았을 때, 창조와 재창조 노정에 의해 정통이 이단이 되고, 새로운 정통이 생겨나며 또 다시 정통이 이단이 되고 새로운 정통이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만희의 주장이다. 이 역시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기성교회가 이단이며 신천지교회가 정통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해 신천지 교리의 형식적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부패한 세계는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와 선민을 선택하시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이 때 멸망한 이전의 세계는 선천이고 새로운 목자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후천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반복되어 왔으며, 하느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선택할 때마다 후천이었던 것은 옛 언약에 속한 배도한 멸망의 세계, 비진리이며 이단인 선천이 되고, 새 목자를 통해 새 언약을 가진 후천이 정통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리는 기존의 그리스도교계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신천지교회를 정통으로 내세우고, 또 그 창립자인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 ‘약속의 목자’로 드러내기 위한 ‘이만희 신격화 교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7) 같은 책, 155.

2. 계시론에 대한 비판

신천지의 교리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교리의 바탕이 되는 계시와 성경에 대한 신천지의 그릇된 이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천지 교리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계시는 마지막 계시요, 이 계시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계시가 오늘날 신천지예수교에 왔다”⁷⁸⁾, “우리가 전하는 이 계시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지 약 2천 년 만에 처음으로 열어 전하는 것이다”⁷⁹⁾ 라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그들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시’의 개념이 잘못되었으며, 심각한 허구성이 있음을 밝히도록 하겠다.

1) ‘두 종류의 계시’ 교리

계시에 대한 신천지의 그릇된 이해는 크게 ‘두 종류의 계시’와 ‘직통 계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두 종류의 계시’ 교리를 살펴보겠다.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계시에는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가 있다고 가르친다.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장래 이를 일을 이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환상 계시’이며 다른 하나는 약속한 예언을 실물로 이루어서 보여주는 ‘실상 계시’이다. 환상 계시는 이를 실상에 대해 증거 하기 위해 필요한 청사진과 같다.⁸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느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실상 계시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상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계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시 받은 목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⁸¹⁾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느님께 계시 받은 목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처럼

7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Ⅱ』, 도서출판 신천지, 2010, 35.

79) 같은 책, 114.

80) 이만희, 『요한계시록의 실상』, 45 ; 『천지창조』, 26 참조.

81) 『천지창조』, 27.

럼, 이 시대에도 계시 받은 목자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만희는 “환상 계시는 실상 계시가 나타나기까지 봉하는 수단이 될 뿐”⁸²⁾이라고 주장한다. 하느님께서 실상 계시를 주시기 전까지는 환상 계시만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환상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며, 사도요한도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하면서 그 실체를 알지는 못했고, 때가 되면 사도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약속의 목자가 와서 환상 계시가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전해준다는 주장을 편다.⁸³⁾

신천지에서는 요한 묵시록을 근거로 들어 다음과 같이 ‘계시의 전달과정’을 제시한다.

하느님은 봉한 책(봉인된 두루마리)을 어린양, 즉 예수님에게 주시고(묵시 5장 참조), 예수님은 일곱 봉인을 떼어 천사에게 계시하시고(묵시 6장; 8장 참조), 천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두루마리)을 받아 요한에게 전달하고(묵시 10장 참조), 요한은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삼키고 책에 기록된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종들에게 알려준다(묵시 10장 참조). 이렇게 ‘하느님→예수님→천사→요한→종들’이라는 계시 전달의 도식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도식이 요한 묵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일어났고(환상계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성취 때’(재림·종말 때)에 실상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⁸⁴⁾

그가 이처럼 ‘환상 계시-실상 계시’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환상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실상으로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이만희)에게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희는 자신이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달했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사도 요한 격의 목자’로 칭한다.

82) 같은 책, 28.

83) 같은 책, 27; 『요한계시록의 실상』, 45-46 참조.

84) “약 2천 년 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환상 계시이다. 그러나 그 성취 때가 되면 환상 계시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약속한 한 목자가 열린 책에 기록된 말씀과 실체를 천사로부터 먼저 보고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것이 실상 계시이다.” 『천지창조』, 27.

이와 같은 신천지의 ‘두 종류의 계시’ 교리를 통해 ‘계시’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시(啓示, revelation)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 명사 ἀποκάλυψις 로 표현된다. 이 단어는 동사 ἀποκαλύπτω 에서 유래하며, 이 동사는 ‘~로부터, ~로부터 떨어진’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ἀπο 와 ‘덮다, 씌우다, 숨기다’ 등의 의미의 동사 καλύπτω 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계시’는 ‘덮인 것을 벗기는 것,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⁸⁵⁾

우리말에서도 ‘계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①깨우쳐 보임. 현시(現示) ②(종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함. 묵시(默示)”⁸⁶⁾이다. 또 종교적 의미에서 ‘계시’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이나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종교적 진리를 신 스스로가 자기를 열어 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의지 혹은 가르침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⁷⁾고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계시 헌장』 제2항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예페 1,9참조)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중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서는(콜로 1,15; 1티모 1,17 참조) 이 계시로써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탈출 33,11; 요한 15,14-15참조), 인간과 사귀시며(바룩 3,38 참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고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모두 ‘계시’를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고 밝히시는 신적 행위로 이해한다. 단어 자체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 밝히다’라는 라틴어 어원(revelare)을 가지고 있는 ‘계시’는 하느님의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업적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⁸⁸⁾

85) ἀποκαλύπτω 외에도 φανερώω(나타내다), γνωρίζω(알리다), ποτίζω(비추다), ἐξηγέομαι(설명하다) 등의 동사로 계시의 특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숨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계시”,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교, 2003, 38 참조.

86) “계시”, 국어국문학회, 앞의 책, 194.

87) “계시”,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377.

88) “이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 『계시헌장』 제2항

이와 같이 계시의 목적은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상 계시가 나타나기까지 (성경을) 봉하는 수단인 환상 계시’라는 신천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차라리 ‘예언 - 성취’의 구도로만 제시해도 무방할 것을 ‘환상 계시 - 실상 계시’로 제시하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르침인양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가 이러한 그릇된 계시론을 바탕으로 교리를 전개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감추어진 환상계시를 드러내고 실상계시를 전달한다는 ‘약속의 목자’로 이만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다.

2) 직통 계시 주장

신천지의 계시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류는 이만회가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대한 추종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만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그 계시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므로 이것이 참되다는 믿음이다. 이 ‘직통 계시’는 거의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내세우는 것이다.⁸⁹⁾

이만회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약 이 천 년 전 사도 요한은 당시 터키 밧모섬[파트모스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오늘날 필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실상’으로 응한 것을 보고 ‘성령에게 설명 들은 대로’ 본서에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해석과 실상이 참임을 증거하는 바이다.⁹⁰⁾

필자는 주 재림시 등 예비할 말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각종 신학 세계를 찾아 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필자가 찾는 주님의 말씀은 찾지 못했고 모든 모임마다 사람의 모임이요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말, 세속의 말뿐이었으며 그 누구 한사람 성경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암8:11). 그리하여 필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요6:45)을 본 책 “성도와 천국”에 실어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것이니 보고 깨달아 그토록 원하는 소망의 나라 천국에

89)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벗어나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계시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일부 종교들과 신흥 종파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계시들’에 근거하여 세워진 경우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67항.

90) 『요한계시록의 실상』, 27.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⁹¹⁾

요한 계시록 전장과 같이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의 수차례에 걸친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고 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온 책도 먹었으니 어이 말로 다 형용하라. (중략)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빛의 사람이 구름 타고 2번째 나타나서 계시록 1장과 같이 나에게 안수하며 말씀을 부탁하시고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와 같이 책과 지팡이를 주며 부탁한 일이다. 옛 선지자들이 나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요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론 실상과 그 일에 대한 설명이었으니 내 어찌 모른다, 안 봤다 할 수 있겠는가. 요한 계시록을 실상과 함께 설명하고 알려주실 때 4복음의 예언도 함께 설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계시록의 진상을 본 사람은 오직 본인 한 사람뿐이요 아는 사람도 본인 하나뿐이다.⁹²⁾

이렇게 이만희는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계시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것이 신천지 교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조건이다.

이만희는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신천지 교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지만, 기성교단에서는 신학교에서 신학박사나 교수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神學)이 아닌 인학(人學)’이고, ‘사람의 계명’을 배워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방한다.⁹³⁾ 이는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신천지 교리가 신학적 바탕이 전무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91) 『성도와 천국』, 1.

92) 『영행』, 75-76.

93) “문제는 성령을 받고 전하는 것과 성령 없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뜻인가 하는 것이다. (중략) 목사 안수를 천번 만번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없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깊은 것 곧 천국 비밀을 아는 자이다(고전2:10). 성경에 약속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요, 다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다(마 15:1-9참고). (중략) 우리 신천지는 세상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오직 값없이 받는 생명수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 강의하므로 (중략)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하늘에서 오는 계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갈1:11-12).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 『천지창조』, 507-508.

그렇다면 이만희는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일까? 이만희가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대한 분별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이만희의 신앙전력을 살펴보면서 다루었듯이, 이만희는 1957년에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에 따라 전도관에 입교’하였고, 1967년에는 ‘성령의 계시에 이끌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장막성전에 입교’하였다.

이만희가 입교할 당시 전도관은 이미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혼음(混淫)교리가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전도관 교주 박태선은 자신을 ‘동방의 의인’, ‘이긴 자’, ‘감람나무’ 등으로 칭했고, 심지어 ‘천상천하의 하나님’으로까지 신격화하며 『예수는 개자식이다』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의 설교집을 내기에 이른다. 이만희를 이런 상식 밖의 사이비종교로 이끈 영이 과연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재열의 장막성전 역시 신천지 교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실상’의 실체인데, 1969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지만 실패하였고, 현재 유재열은 평범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만희가 자신을 전도관과 장막성전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영이 과연 성령인가? 이만희를 이끌어 전도관과 장막성전의 교리를 배우고 받아들이게 한 영이 성령일 수 있는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만희를 전도관과 장막성전으로 이끈 영이 그의 주장대로 하느님의 성령일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교리가 통일교, 전도관, 장막성전의 교리와 비슷하다는 의문점은 차치하고, 설령 이만희가 실제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시의 출처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가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교리와 실상의 실체가 때에 따라서 조작되고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가 참되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인 진용식 목사는 이만희의 직통 계시 주장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이만희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각종 신학세계를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보았고, 어느 신학자를 만났고, 얼마나 신학 공부

를 해보았는가?⁹⁴⁾

둘째, 국내에만 40여명의 자칭 재림주들이 있고, 그들은 대체로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규모면에서 신천지보다 훨씬 큰 곳도 있는데, 다른 재림주들의 직통 계시는 거짓이고 이만희 자신의 직통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셋째, 이만희는 자칭 재림예수 유재열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이만희가 주장하는 주요 교리들이 대부분 유재열이 주장하던 교리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신의 교리가 직통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재열이 하느님이란 말인가?⁹⁵⁾

개신교계에서 말하는 ‘직통 계시’는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적 계시’와 개념상 유사하다. 가톨릭교회는 사적 계시에 대해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⁹⁶⁾라고 가르친다. 계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주어졌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⁹⁷⁾라고 기록하였다.

신천지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제시하면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아들과 또 아들

94) 오히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점을 자랑스레 선전한다.

95) 정윤석 외 2명,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도서출판 한국교회문화사, 2007, 62-63 참조.

96) 『가톨릭교회교리서』, 67항.

97)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중략)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분께 문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라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는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출판사, 1997, 227-228.

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개역한글, 마태 11,27』⁹⁸)는 구절을 인용하고⁹⁹), 따라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정통이 될 수도 없다”, “계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시 받은 목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¹⁰⁰)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느님을 온전히 계시하셨고¹⁰¹),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계시를 받았으며¹⁰²), 그 계시는 성전(聖傳)과 성경(聖經)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¹⁰³) 『개역한글』 성경에서 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 이만회’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즉,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말하며, 나아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요한 17,20 참조)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계시 이외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의 공적 계시는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1티모 6,14; 티토 2,13 참조)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¹⁰⁴)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친다.

98)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 11,27)

99) 이만회는 자신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2』에서 ‘계시’에 대해 설명하며 이 구절을 황당하게 해석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서 ‘아들과 또 아들’을 구분하여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아들’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이런 엉터리 해석은 자신을 ‘사도 요한 격의 목자’로 내세우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만회, 『계시록의 진상2』, 34 참조.

100) 『천지창조』, 27.

101)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요한 14,7)

102)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요한 17,8) ;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요한 17,26)

103) 『계시현장』, 제7항-제10항; 『가톨릭교회교리서』 제74항-제83항 참조.

104) 『계시현장』, 제4항.

3) 소위 ‘요한계시록의 실상’

‘실상 교리’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한 묵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만희와 신천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장이다.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아야 할 계시록의 말씀(계 22:18~19)은 기록한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누구도 참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성취 때가 되어 계시록의 예언이 홀연히 이루어졌으므로 필자는 그 실상을 직접 보고 성령에게 설명 들은 대로 낱낱이 증거하려 한다.¹⁰⁵⁾

그가 ‘계시록의 실상’을 직접 보고 성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는 구원론으로까지 이어진다.

계시록이 옹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자(계2,3장, 21:7)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며 마귀의 영에게 조종을 받는 자이다. 천하 만국은 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열린 책을 받아먹는 약속한 목자 앞으로 나아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소성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¹⁰⁶⁾

신천지의 ‘실상 교리’가 비록 내용상 신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신천지의 독특한 핵심 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신천지의 실상 교리와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¹⁰⁷⁾고 말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이만희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다는 요한 묵시록의 실상을 증언한다.

105) 『요한계시록의 실상』, 35.

106) 같은 책, 37.

107) 이만희, 『계시록 완전해설』, 22.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실상 교리는 앞서 이만희의 신앙전력을 다루며 언급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요한 묵시록에 예언된 사건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장막성전의 역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66년 과천 막계리에 두 증인, 말세의 피난처, 3년 반의 시한부를 주장하는 유인구, 유재열 부자(父子)에 의해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 장막성전이 세워졌다. 한 때는 600세대 이상이 입주하여 신도수가 3,000~4,000을 헤아릴 정도였으나 시한부종말설이 불발된 후 이탈자들이 늘어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에 편승해 사이비종교집단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이를 피해 개혁이란 명분하에 교주 유재열은 모든 교권을 심복이었던 오평호 목사(1980.3.14. 당회장에 취임)에게 물려주고 신학 공부 차 유학을 선택하게 된다. 1980년 9월 14일 과천 장막성전과 전국 50여 곳의 지교회는 제직 총사퇴와 함께 대한기독교장로회 소속 이삭교회로 바뀌었고, 1981년 9월 20일 오후 2시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가 전 장막성전 교역자 17명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새롭게 변모하면서 장막성전의 잔재가 사라지게 되었다.¹⁰⁸⁾

신천지의 실상 교리는 위와 같이 ‘장막성전’이 장로교회로 개혁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요한 묵시록에 끼워 맞추어, 요한 묵시록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장막성전의 교주였으며 신천지 실상 교리에서 ‘배도자(背道者)’로 칭하는 유재열은 묵시 12장의 아이를 해산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해를 입은 여자’이고 유재열이 해외로 유학을 간 것은 묵시 12장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는 사건의 실상이다. 또 유씨 부자 등 일곱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일곱 별, 장막성전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실상이다. 또한 장막성전 개혁의 주체였으며 신천지 실상 교리에서 ‘멸망자’로 칭해지는 오평호 목사는 멸망의 아들, 땅에서 올라와 666표를 하는 짐승, 뱀, 일곱 머리에 속하여 열 뿔을 가진 여덟째 왕의 실상이다.

108) 신현욱, “신천지 완전해부(3)”, 『월간 현대종교』 2013년 3월호, 64-65.

그런가하면 이만희와 홍종효¹⁰⁹⁾는 묵시 11장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서, 이들이 옥고를 치른 사건은 묵시 11장의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의 실상이다. 장막성전을 개혁하기 위해 투입된 ‘청지기 교육원’의 탁성환 목사는 묵시 17장의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실상이며, 그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의 실상은 청지기교육원 소속의 일곱 목사, ‘열 뿔’의 실상은 장막성전의 열 명의 장로이다. 장막성전 전 제직의 총사퇴와 교단이 장로교로 바뀌는 것은 묵시 6장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며 하늘이 없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사건의 실상이라는 것 등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 묵시록의 실상이다.¹¹⁰⁾ 이만희는 자신이 직접 행한 ‘계시록 실상강의’에서 장막성전이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고 함께 한 대표적인 교단인 장막성전의 종말로 2천 년간 이어져 온 모든 기독교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밤이 되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고 가르쳤다.¹¹¹⁾ 이처럼 신천지는 장막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고 함께 한 대표적인 교단’으로 여기고 장로교를 ‘이방(異邦)’으로 여기며 장로교의 교리를 사탄의 말씀이라고 여긴다.

실상 교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요한 묵시록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일(실상)을 예언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런 억지스러운 실상 교리를 통해 이만희는 자신을 ‘요한 계시록의 전장의 실상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계시를 받은 자’로 내세운다.

(2) 장막성전 ‘첫 언약’의 실체

신천지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첫 장막’¹¹²⁾, ‘예비장막’으로 여기는 이

109) 홍종효는 이만희와 함께 신천지 초기에 ‘두 증인’ 중 하나로 활동하였으나 1987년에 자신을 ‘제림예수’라고 주장하며 신천지를 탈퇴하였고, 2012년에 사망하였다.

110) 신현욱, 앞의 책, 65 참조.

111) 이만희 계시록 실상강의 동영상 참조.

11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개역한글』 히브 9,2-3)에서 기인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장막은 별개의 두 장막이 아니라 한 장막 안의 두 칸으로 나뉘어진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 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히브 9,2-3)

유 중 하나는 그 장막성전에 첫 언약의 ‘언약궤(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언약궤’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막성전의 강단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놓여있었는데, 여기에는 1966년 장막성전이 시작될 당시에 유인구¹¹³), 유재열 등 8사람¹¹⁴)이 오른손 바닥과 동맥을 잘라 하느님과 피로 언약을 맺으며 받았다는 ‘언약서’와 유재열이 학창시절에 기계체조 선수를 하면서 받았던 메달과 상장 등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첫 언약’(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에서 ‘옛 언약’)이다. 언약서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나의 아들들이 眞心으로 사랑하노라 自己 아들들이 밥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것이며 生鮮을 달랄 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부르짖는 것을 나 여호와가 외면할 것인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티없이 사랑하노라 노아때도 조곰도 견책안하고 구했노라 너희들은 염려말라 스스로 굳게하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律法이며 戒名이니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하라(학개書 2장)을 보라 그 말씀과 같치 三年半 되기 前에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시험과 고통이 없노라 오직 사랑만을 주노라. 나를 否認하지 말라 이미 能力을 다 썼으니 믿고 行하라. 6명은 王에게 순종하며 왕은 나에게 기쁘게 하라. 나는 여섯을 보고 잇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를 忿려 뒤편 하지 말라 (중략) 나는 사라게신 성신 여호와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머리우에 준 것을 빼앗으리라 (중략) 7천년동안 참다 이제 너희를 택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영체와 그 외 여럿같이 될 것을 주시 보게 하지 않았느냐 (후략)¹¹⁵)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장막성전의 ‘첫 언약’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언약을 맺은 지 1년 뒤인 1967년에 유인구(임마누엘)와 자칭 일곱 사자(신천지 실상 교리에서 7별의 실상)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일곱 사자들은 언약서를 찢고¹¹⁶) 단상에 소변을 누고 떠났다는 것이다.

113) 유재열의 부친이며, 장막성전 초기에는 유인구가 ‘임마누엘 왕’으로서 장막성전의 교주노릇을 했다.

114) 유인구, 신종환, 김창도, 정창래, 백만봉, 신광일, 유재열, 김영애. 이들은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이단인 김종규의 “호생기도원” 출신이었다.

115) 한순찰, 『종교 세계의 관심사』, 도서출판 신천지, 1994, 46에 실린 언약서 내용을 <http://knw1022.blog.me/10025983571>(검색일: 2013.8.15) 에서 재인용.

116) 이때 찢어졌다는 언약서가 신천지에서 발간한 『종교세계의 관심사』에는 깨끗하게 스

어쨌든 첫 언약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타난 새 언약의 장막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다.

(3) 실상 교리와 이만희 신격화

실상 교리를 통해 이만희는 ‘계시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인자 같은 이(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안수 받은 자’(목시 1장),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자(목시 2-3장), 이긴 자(‘이기는 자-승리하는 사람’의 완료형)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는 자, 흰 돌과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자, 하느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자,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칠장(쇠 지팡이)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목시 2-3장),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고(목시 4장), 하늘에서 온 퍼 놓인 책(두루마리)을 받아먹고(목시 10장),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목시 11장), 성령에 이끌려 음녀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짐승의 비밀을 보고(목시 17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목시 21장) 사도 요한 격인 목자(새 요한)이며,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목시 6. 19.), 밀 한 되(목시 6,6), 일곱째 마지막 나팔(목시 11,15),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목시 12,5),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자(목시 22,16)의 실상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신천지의 실상 교리는 결국 교주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한 교리이다. 신천지의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실상 교리를 통해서도 결국 이만희의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조작된 신천지의 실상 교리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 교리는 일어났거나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억지로 성경에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 따라서 신천지의 실상 교리가 그 내용에서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굳이 그 교리의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교적이지 못한지 여기서 세세하게 반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허황된 교리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라는 그릇된 계시관을 바탕으로

캔되어 실려 있는 것에 대해 언약서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로 하기 때문에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사이비종교 ‘장막성전’을 성경에 나타나는 ‘장막’¹¹⁷⁾의 실상으로 보고 요한 묵시록을 풀어나가는 것 자체도 황당하다.

게다가 신천지가 실상 교리를 가르치며 제시했던 증거들(사진자료, 이삭교회의 주보, 동영상 자료 등)이 상당부분 조작되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재열은 신천지의 주장¹¹⁸⁾과 달리 미국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는커녕 등록한 일조차 없으며 당시에는 해당 신학교에 박사과정이 없었다. 또한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유재열이 미국에 가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이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웨스트민스트 신학교라고 속여 제시하였다. 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¹¹⁹⁾와는 달리 오평호 목사는 천주교 사제서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¹²⁰⁾, 실상 교육에 제시된 그의 나이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또한 신천지에서 제시하는 실상의 인물들¹²¹⁾과 사건 날짜 등이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 가르치는 실상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요한 묵시록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목자(이만희)가 직접 증거한다’는 신천지의 주장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17) 묵시록 13장 6절에 나오는 ‘그분의 거처’(『개역한글』에서는 ‘그의 장막’)를 가리킨다.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사단(짐승)에 의해 무너진 선천(先天)시대의 첫 장막이며 성소이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묵시록 15장 5절(‘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 『개역한글』에서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에 예언된 후천(後天)시대의 새 장막이며 지성소라고 주장한다.

118)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넘겨주고 도미하여 1980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방교리(장로교 신학)를 배우며 양육받아 1984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묵시 12장에 등장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 광야로 달아나 1260일동안 보살핌을 받은 것의 실상이라고 가르친다.

119)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목사가 천주교 사제였으나 1968년에 개종하여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1975년에 당시 45세였던 오평호가 20세였던 유재열과 만나 유재열의 충실한 심복이 되었고, 이는 장막성전을 삼키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가르친다.

120) 오평호는 1947년생이고, 유재열은 1949년생으로 1975년 당시 나이는 각각 28세, 26세였다. 오평호 목사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1968년에는 22세였는데, 그가 천주교 사제로 서품되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신천지에서는 오평호의 나이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121) 신천지에서는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 뿔’, ‘밀 한되와 보리 석되’, ‘네 마리 말’ 등의 요소들에 각각 구체적인 인물을 대입시켜 이름과 사진 등을 제시하지만 본고에서는 전개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루지 않겠다.

3. 성경관에 대한 비판

1)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약 6천년이라는 주장의 의도

신천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약 6천년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약 2천 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초림 때까지 약 2천년이며, 예수님 초림 이후 지금까지가 약 2천 년으로 모두 약 6천 년이다.¹²²⁾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이 ‘성경이 기록된(형성된) 역사’나 ‘약 6천년 전의 역사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는 6천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 이 시대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끝이므로, 예수님 초림 이후 약 2천년이 지난 지금이 역사의 끝이라는 종말론적 의도도 담고 있다.

2) ‘말씀의 짝’ 교리

신천지에서는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다고 가르친다.

비유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 예를 들어 재림은 아담, 노아, 모세, 초림 예수님 때의 인명과 지명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기록하셨으므로 신약과 구약에 그 짝이 있고, 따라서 예언이 육신이 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³⁾

사34:16을 읽어봅시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짝’이란 비유의 말씀(그림자)과 그 뜻(실체)을 말하는 것입니다.¹²⁴⁾

이것이 소위 ‘짝 교리’이며,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넘나

122) 『천지창조』, 23.

123) 『성도와 천국』, 26.

124) 신천지 구역공과 교재 『감추었던 만나』, 16을 한창덕,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비판』, 새물결플러스, 2013, 144에서 재인용.

들며 성경을 해석하는 ‘비유풀이’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성경해석방법은 신천지만의 고유한 방법은 아니다. 대부분 재림주(再臨主)를 주장하는 집단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¹²⁵⁾, ‘기독교복음선교회(JMS)’¹²⁶⁾, ‘천국복음전도협회’¹²⁷⁾ 등이 있다.

이처럼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성경구절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다.

너희는 여호와와 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개역한글」 이사34,16)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짝을 찾아서 성경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다른 번역본들에서 살펴보거나 그 문맥을 파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짝’이 신천지 등이 주장하는 대로 ‘말씀의 짝’을 의미하지 않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새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땅은 대대로 폐허가 되어 영영 그곳을 지나는 이가 없으리라. 울빼미와 고슴도치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리라. 그분께서는 그 위에 ‘혼돈의 줄’을 펴시고 ‘불모의 추’를 내리시리라. 그곳에서는 귀족들에게 더 이상 왕국이 선포되지 않고 제후들도 모두 없어지리라.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올라오고 요새에는 썩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하여 승냥이들의 소굴이 되고 타조들의 마당이 되리라. 그곳에서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만나고 염소 귀신들이 서로를 부르리라. 도깨비도 그곳에 쉬면서 안식을 얻으리라. 독사가 그곳에 깃들여 알을 낳고 제 그늘 아래 그것을 품어 부화시키리라. 거기에는 술

125) 안식일교 계통의 이단 ‘안상홍 증인회’의 한 분파이며, 현재 ‘하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해지는 장길자와 총회장 김주철이 그 대표이다. 1985년에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126) 자칭 재림예수인 정명석이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통일교 계통의 이단이다. 총재 정명석은 2009년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27) 1970년 자칭 재림예수인 구인회가 설립하였으며, 구인회는 이만희와 유사하게 신앙촌과 장막성전을 거쳤고 1975년에 사망하였다.

개들도 저마다 짝을 지어 모여들리라. 주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분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제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리라. (이사 34,10~17)

이사야서 34장의 내용은 하느님의 심판이 에돔에 내려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많은 동물들, 특히 부정한 짐승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16절에 등장하는 ‘짝’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것이다. 짐승들의 짝을 말씀의 짝으로 이해하는 오류는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구절만 따로 떼어 보는 데서 연유한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씀의 짝’이란 애초부터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3) 비유풀이

비유풀이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성경해석 방식이며, 복음방과 센터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비유풀이 방식은 짝 교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단들, 특히 교주를 신격화 하는 이단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교주를 재림주(再臨主)로 만들기 위해 성경의 자구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비유로 풀어간다.

(1)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로 쓰여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만희는 『성도와 천국』에서 “성경은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¹²⁸⁾고 말한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 양식들이 존재하는데, 구약에서는 신화·전설·법전·신탁·역사 등의 양식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설교·연설·비유·담화·편지·묵시 등의 문학적양식들이 등장한다.¹²⁹⁾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128) 『성도와 천국』, 25.

129) 정태현, 『성서입문 하권』, 한남성서연구소, 2008, 27 참조.

주장하면서 비유가 아닌 구절들까지도 비유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특히 신천지는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마태 13,34)는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비유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위 구절이 말하는 것은 마태오 복음서 13장에 기록된 비유들(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 신천지가 비유풀이의 근거로 즐겨 인용하는 마태오복음서도 총 28장 중에서 13장에만 비유가 등장하지만 신천지는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도 비유로 해석하고 있다. 오히려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마태 13,53)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도 비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묵시 1,1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시’는 비밀이나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요한 묵시록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봉인된 요한 묵시록을 이 만희가 풀어준다는 주장 역시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묵시 22,10)라는 묵시록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번 봉인된 두루마리’(묵시 5,1 참조)는 8장에서 이미 봉인이 모두 풀렸다(묵시 8,1 참조). 그리고 묵시록의 저자는 이를 묵시록에 기록했는데, 묵시록이 봉인되어 있고 누군가가 이 봉인을 풀어야 한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게다가 묵시록 5장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요한 묵시록’이라는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묵시록의 저자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고, 그 봉인이 풀리는 것도 보았으며, 그 후에 자신이 본 바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물이 요한 묵시록인데, 그가 환시로 본 것이 아직 쓰지도 않은 요한 묵시록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비유는 신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비유가 ‘감추고 봉함(封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를 시작으로 ‘비유를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론적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 증거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즉, 이만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만희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의 비밀인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 어두운 구렁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와 천국 백성은 될 수 없다. ...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실제 있었던 육적인 일이나 신약의 사건은 구약시대의 인명과 지명을 빙자하여 비유를 배운 영적인 것이다.¹³⁰⁾

성경은 감추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계시(라틴어: revelatio)라고 부를 수 없다. 아울러 비유 역시 감추고 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비유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등장시켜 ‘비유’로 말씀하셨다.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개역한글』 마르 4,10-12)라는 구절이나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마태 13,15) 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며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그 비유를 듣는 이들 중에는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 안 되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¹³¹⁾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봉해졌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봉해진 성경을 열어주는 이’, ‘봉해진 요한 묵시록의 예언을 풀어주는 이’, ‘하

130) 『성도와 천국』, 24-26.

131) 『천지창조』, 285.

늘나라의 비밀인 비유를 풀어주는 이'가 있으며, 그가 바로 이만희이고, 그의 가르침만이 참되다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전제이다.

만일 비유를 풀어해 주는 이가 있어야만 비유를 알아듣는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마르코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음을 분명히 전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해주셨다(마르 4,34 참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에 전달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아직도 성경의 비유가 감추어져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우리말로 번역된 '비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παραβολή*인데, 이는 어떤 사물의 옆에 나란히 던져 놓음으로써 서로 비교하게 하여 그 뜻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표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비유를 듣는 대중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마르4,33)고 전한다. 비유는 감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3) 신천지식 비유풀이의 오류

이만희는 『성도와 천국』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라는 문구를 예를 들어 비유와 실체를 설명했다.¹³²⁾ 그러나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라는 문장에서는 꽃이 여자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꽃'이 항상 '여자'라고 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사과'가 언제나 '얼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비유풀이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천지는 루카복음 8장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루카 8,11)라는 구절을 근거로 성경에 등장

132) 『성도와 천국』, 23 참조.

하는 ‘씨’라는 단어를 모두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하느님께서 뿌리시겠다고 하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느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라고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신천지의 해석대로라면 하느님께서 사탄의 말을 뿌리는 주체가 되신다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예레미야서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라는 신탁은 그 문맥으로 보아 말 그대로 인간과 짐승을 번성시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뿌리겠다고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씨’에 대한 잘못된 비유풀이를 통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¹³³⁾ 각각 ‘하느님의 말씀(사람의 씨)’과 ‘사탄의 말(짐승의 씨)’이라고 비약시킨다. 여기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사람의 아들은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와 ‘나무=사람’이라는 비유풀이를 덧붙여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이만희)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의 말을 전하는 거짓 목자(기성교회의 설교자)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신천지의 이런 비유풀이대로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동산에 세워두신 하느님이 바로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라는 엉뚱한 결론이 가능하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방식에는 몇 가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설명을 위해 ‘나무=사람’이라는 공식을 예로 들겠다. 먼저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는 공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일부 구절들(요한 15,1-5; 마태 7,15-20; 다니 4,10-23 등)을 제시하면서 성경의 ‘나무’를 일률적으로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잠언 3,18)라고 말하며 지혜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헛것들의 훈계란 나무토막과 같습니다”(예레 10,8)라고 말하며 우상의 훈계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또 코린토 1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

133) 창세기는 이 두 나무의 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자연의 이치상 나무는 씨앗에서 시작한다는 논리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씨를 상정한 것이다.

초 위에 집을 짓는 신자들의 행실이 나무로 비유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로 사용된 ‘나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천지는 이를 무시하고 ‘나무=사람’이라는 공식을 제시한다.

신천지 비유풀이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오류는 ‘사람은 나무다’라는 전체에서 ‘나무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¹³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더구나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나는 포도나무다”(요한 15,5)라는 말씀을 근거로 ‘(포도)나무-예수님-사람’이라는 공식을 제시하지만,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빵-예수님-사람’이라는 공식을 끌어내지 않고 ‘빵-예수님-말씀’이라는 공식을 제시한다. 결국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성경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같은 원리의 비유풀이를 하면서도 이를 주장하는 이단들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신천지에서는 ‘구름’이 ‘영’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구름’이 ‘육체’를 비유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비록 두 단체가 ‘구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교주의 신격화이다. 성경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사도 1,9-11 참조)이라는 구절을 두고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긴자(이만희)의 육체에 함께하신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미 재림하셨으며 그가 안상홍¹³⁵⁾이라고 주장한다.

비유에 대한 해석은 거기에 담긴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겨자씨의 비유라면, ‘씨’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하늘나라를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마태 24,43-44; 묵시 16,15 참조)고 한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은 도둑’이라는 공식을

134) 나무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목적도 역시 이만희를 믿으라는 것이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앞서 말한 두 나무 곧 두 목자를 구별하여 믿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세상의 교권주의자들은 가짜임을 알아야 한다.” 『성도와 천국』, 29.

135) 안상홍 자신은 생전에 자신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가르쳤고 1985년에 사망하였지만, 그 추종자들은 안상홍 사후에 그를 재림예수로 신격화했다.

만들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요한 10,8,10)라는 구절에서 도둑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천지의 비유풀이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4) 「개역한글」 성경만이 참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만희는 『성도와 천국』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그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말씀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했을 터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성도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다.¹³⁶⁾

요약하자면, 성경의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원어성정보다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천지는 「개역한글」 성경만이 정확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다른 번역본들과 외국어 번역본들, 심지어 원어인 히브리어와 희랍어 성경까지도 부정한다.¹³⁷⁾

신천지 내부에서 강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난해질문 모범답안’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개역한글판 성경으로 유도하기 위해 강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해야 하는지 ‘모범답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천주교 성경

천주교 성경도 개신교 성경도 모두 유대교 성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뜻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처음 개신교 성경을 쓴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다. 어느 것으로 봐도 좋겠지만 말씀을 나눌 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므로 성경도 하나로 봤으면 한다.

136) 『성도와 천국』, 9.

137) 신천지에서 20여년간 교육장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신현옥은 영어성경을 읽다가 신천지에서 묵시 20,4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2. 개정개역성경

개정개역 성경을 만든 취지는 참 좋았지만 아직 오류가 조금씩 있고 아직 수정 중에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다시 개역한글로 바꾼 경우도 많이 있다. 어느 것을 보든 큰 문제는 없지만 난 개역한글을 보니 여러분이 맞춰라.

3. 영어성경이 더 맞다

전 세계 여러 성경 번역이 됐으나 지금까지 뜻이 틀렸다고 문제시 된 적이 없다. 성경 중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 뜻이 잘 깃들여 있을까? 영어성경?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 틀렸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깃들여있는 성경은 당신을 믿게 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당신 손에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행17:24~27)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신다.

4.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해야

신학교가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먼저 가르친다. 그러나 신학 후에는 대부분의 목회하거나 신학을 연구하는 교수 또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며 세계 여러 신학교수들과 세미나 및 성서 모임 통해 교류한다.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싶다면 히브리어를 먼저 배워라.

5. 번역되면서 오류가 생긴 것 아닌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다. 만약 번역하면서 뜻이 달라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몇 백 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성경은 약속이니 뜻이 달라져 약속을 지켜도 뜻이 달라진 성경 때문에 약속 못 지키는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겠는가? 번역 할 때도 성경을 쓸 때도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도 못 믿겠다면 원문 성경 있으니 비교해도 된다. (아는 척, 있는 척 하기..)¹³⁸⁾

구절구절 오류들이 너무도 많이 담겨 있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므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역한글」 성경은 「중국어문리역」(1852년)을 한국어로 번역(중역)한 「성경전서」(1911년)가 두 차례에 걸쳐 개역(改譯)되어 1961년에 발간된 성경이다.¹³⁹⁾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변하였고, 성서학 등의 학문이 발전하면서 잘못된 (한글)문법과 오역된 부분을

138) 신천지 총회 교육부, 「난해질문 모범답안」, <http://downwave.blog.me/150163678463> (검색일:2013.3.21)에서 재인용.

139)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major/feature01.aspx> (검색일: 2013.12.02) 참조.

바로잡으면서 1998년에 「개역개정」 성경이 발간되었다.¹⁴⁰⁾

신천지의 성경공부는 「개역한글」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개역한글 성경만이 참되다고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만희가 받아먹은¹⁴¹⁾ 성경이 개역한글 성경이라는 것과, 개역한글 성경이 성경공부를 할 때 그 의미 전달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다.¹⁴²⁾ 그러나 신천지가 개역한글 성경만을 고집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리가 개역한글 성경이 오역(誤譯)하고 있는 구절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는 개역한글 성경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에서 다루겠다.

이만희가 환시 중에 받아먹은 성경이 「개역한글」이라는 이유로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까지 부정하면서 개역한글 성경만이 참되다고 고집하는 것은 억지이다. 개역한글 성경 역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개역하여 발간한 성경이기 때문이며, 어느 번역본이 ‘더’ 정확할 수는 있어도 어느 번역본‘만이’ 정확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5) 올바른 성경해석

이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계시현장』과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성경해석의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위해서는 성경의 원(元)저자인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¹⁴³⁾

인간 저자가 의도한 바를 알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적 상황뿐만 아니라 문학 유형과 이해·표현·서술 방식 등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¹⁴⁴⁾ 그리고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 즉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을 따르는 성

140)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major/feature02.aspx>(검색일: 2013.12.02.) 참조.

141) 『계시록의 진상』, 108 참조.

142) 도마지파 전도기획부, 『난해질문과 해답』, 100 참조.

143)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09항; 『계시현장』 제12항 참조.

144)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10항 참조.

경 해석을 위해서는 성서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유의해야 하며,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성전(聖傳)에 따라 성경을 읽고¹⁴⁵⁾, 신앙의 유비(신앙 진리들 상호간의 일관성과 계시의 전체 계획 안에 있는 신앙 진리의 일관성)에 유의해야 한다.¹⁴⁶⁾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즉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가르쳐왔다. 여기서 영성적 의미는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로 세분된다.¹⁴⁷⁾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해석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신천지의 성경해석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구적 의미에 치우쳐 있는 동시에 그릇된 방식으로 우의적 의미를 도출해낸다. 또한 교주를 신격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제 눈에 물 대기’ 식으로 이루어진 성경해석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것을 기록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경의 단일성과 신앙의 유비에 유의하면서 거룩한 교회의 성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145) “성경 해석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입니다. ... 성경은 교회의 책이며, 교회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안소근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제29항.

146)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12항-제114항; 『계시현장』, 제12항 참조.

147)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15항-제117항 참조.

4. 그리스도론에 대한 비판

1) 양자설(Adoptianismus)적 그리스도론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부정한다. 그들은 “예수님은 육체였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¹⁴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게 된 것”¹⁴⁹⁾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느님이 한 본체(substantia)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라는 죄 없는 인간의 육체에 하느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만회는 “구약에,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한 목자를 택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시다”¹⁵⁰⁾라고 말한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단교리’이다. 신천지의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으로부터 양자로 받아들여진 인간이라는 이단설(說)인 양자설과 유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인간적 위격이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던 네스토리우스파 이단¹⁵¹⁾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다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 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간이거나 하느님과 인간의 불분명한 혼합체가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느님’¹⁵²⁾이다. 니케아공의회(325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 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이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3,14)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

14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도서출판 신천지, 2010, 212.

149) 같은 책, 25.

150) 『천지창조』, 415.

151) 『가톨릭교회교리서』, 제466항 참조.

152) 『가톨릭교회교리서』, 제464항 참조.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공동번역」 필리 2,6-7)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 9,5)

이와 같은 신천지의 이단적인 그리스도론은 이어서 살펴 볼 ‘시대별 목자’ 교리와의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2) 시대별 목자(구원자) 교리

신천지는 시대마다 택하신 목자(구원자)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 교리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리가 시대별 목자 교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별 목자 교리의 결론은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 교리의 기본적인 틀은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에서는 하느님께서 시대마다 한 인간을 구원자로 선택하셔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또 그 세계가 타락하면 멸망시키시고 떠나시는 행위가 반복된다. 심지어 신천지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인 예수님의 육체에 하느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다는 잘못된 그리스도론을 펼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목자가 있고, 그 목자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자가 되는데¹⁵³⁾,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된다는 주장이 신천지의 시대별 목자론이다. 여기서 신천지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고, 교주 이만희를 예수님의 위치까지 신격화시키며,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업적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그들의 이단적인 ‘시대별 목자’ 교리를 조금 더 살펴보자. 신천지가 주

153) 이는 뒤에서 살펴볼 ‘인간 보혜사 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느님의 영(또는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교리를 통해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인 동시에 ‘육적 보혜사’가 된다.

장하는 시대별 목자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¹⁵⁴⁾이다.

이만희가 주장하는 최초의 목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다. 이만희는 아담이 당대의 구원을 위해 선택된 목자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해괴한 주장을 한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 또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성경이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어 그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만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일 뿐 사람이 아니다. (중략)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아담은 영이 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초의 ‘사람’이다. 아담 전에도 많은 육체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으므로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人子)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¹⁵⁵⁾

이만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아벨을 죽인 카인이 사람들로 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것(창세 4,14 참조), 카인이 아내를 얻은 것(창세 4,17 참조),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말씀들을 근거로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으며¹⁵⁶⁾, 그 밖에도 사람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창세기의 창조설화에 등장하는 각종 동식물을 비유풀이과정을 통해 ‘풀과 채소와 나무는 각종 성도들이며 해, 달, 별은 야곱의 가족과 같은 선민이고, 물은 말씀, 물고기는 성도, 새는 영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

15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Ⅱ』, 74 참조.

155) 『천지창조』, 78-80. 여기서 이만희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의 성경적 의미에 대한 무지(無知)를 드러낸다.

156) 히브리어 성경 창세 2,24에는 주어가 ‘아담(אָדָם)’이 아니라 ‘남자(אִישׁ)’로 되어있으므로, 창세 2,24가 말하는 남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임의로 ‘아담의 부모’로 바꾸어 해석하여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만희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장한다.¹⁵⁷⁾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창조이야기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다. 이만희의 해석은 완전히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의 이단적인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천지가 시대별 목자론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아담시대에는 아담을,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지금은 이 시대의 목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시대별 목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업적을 아담, 노아, 모세, 여호수아의 행적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며 상대화시킨다. 예수님의 구원업적도 창조와 재창조의 순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실패한 구원자로 여기고 이만희를 새로운 목자로 내세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선택된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마태 16,16)이시며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필리 2,6)이시다. “그 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며¹⁵⁸⁾,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¹⁵⁹⁾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인물들(아담, 노아, 모세 등)은 예수님과 동급의 구원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형(豫形)이며,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경륜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예형이었다.¹⁶⁰⁾ 따라서 구약의 성조들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이지 않다. 게다가 예수님 이후에 선택된 새로운 구원자로서 이만희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그리스도교적이지도 않다.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과 같은 영을 지닌 새로운 구원자가 아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675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여 놓게 될

157) 『천지창조』, 60-64 참조.

158) 『가톨릭교회교리서』, 제480항; 1티모 2,5 참조.

159)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제14항 참조.

160)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28항; 제130항 참조.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한다. 교회의 지상 순례에 따르는 이 박해는, 진리를 저버리는 대가로 인간의 문제를 외견상 해결해 주는 종교적 사기의 형태로 ‘죄악의 신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최고의 종교적 사기는 거짓 그리스도, 곧 가짜 메시아의 사기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느님과 육신을 지니고 오신 하느님의 메시아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신천지는 구약에 약속된 목자는 예수님이고, 신약에 약속된 목자는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약과 신약 모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오로지 한 ‘말씀’을 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시다.¹⁶¹⁾ 요한복음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라고 증언한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 분[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주목할 점은 시대별 목자론이 이름만 다를 뿐, 다른 이단들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JMS)에서는 ‘시대별 중심 인물론’을 통해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 교주 정명석을 내세운다. 이처럼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별로 구원자나 중심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동방의 의인 교리에 대하여

한국에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동방의 의인’ 교리이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문선명), 전도관(박태선),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유재열), 실로 등대 중앙교회(김풍일), 엘리야 복음 선교회(박명호), 하나님의 교회(안상홍) 등에서도 이 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교리는 이사야서 46장 11절과 요한 묵시록 7장 2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다. 먼저 해당 구절들을 살펴보자.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땀을 불어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를 사람을 불

161) 같은 책, 제101항-제102항 참조.

러오는 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사 46,11)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개역한글」 이사 46,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개역개정」 이사 46,11)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묵시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 (「개역한글」 묵시 7,2)

신천지는 여기에 등장하는 ‘해 뜨는 곳’, ‘동방’, ‘동쪽’이 대한민국이며, ‘내 계획을 이룰 사람’,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천사’가 대한민국 출신의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이사야서나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예로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다’는 근거를 낸다.¹⁶²⁾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상의 말씀의 결론은 한결같이 동방 한반도요 땅 끝이요 땅 모퉁이다. 이곳이 해돋는 곳이다. ... 아시아의 땅 모퉁이 작은 반도여! 이 엄청난 축복과 경이로운 사건을 뉘라서 부인할 수 있으랴!¹⁶³⁾

성경에는 위에 언급한 구절들 외에도 동쪽에 대한 구절이 많이 등장한

162) 장운철,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 부흥과개혁사, 2013, 76-77 참조.

163) 『계시록의 진상』, 31-32.

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동방의 의인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논리대로라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산아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창세 11,2)는 구절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주해 오다가 바벨탑을 세웠다는 말이 되고,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이사 2,6)라는 구절에서는 한국의 점쟁이들이 등장하는 꼴이 된다. 또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욥 1,3)는 말씀에서 욥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고, 마태오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한국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41-46장에 등장하는 동방, 해 뜨는 곳¹⁶⁴⁾은 페르시아를 말하며, 동방의 의인은 대한민국 과천의 이만희가 아니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를 뜻한다.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희미하게 암시되었던 키루스의 존재가 44장 28절¹⁶⁵⁾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¹⁶⁶⁾

이만희는 2000년에 월간지 『교회와 신앙』을 통해 진용식 목사(現 한국 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와 10회에 걸쳐 진행한 지상(紙上)논쟁에서 “동방의 의인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키루스]임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음”이라는 진용식 목사의 주장에 대해 이사야서 41장과 요한 묵시록 7장을 혼합하여 연관 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답변이 이만희의 성경이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억지스러운지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여기므로 이곳에 인용하고자 한다.

보지 못한 자의 증거는 거짓말이다. 예언은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기록함을 모르고 역사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요 그 이면에는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묵시적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계시록 7장의 해 돋는 곳은 고

164)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이를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이사 41,2);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왔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이사 41,25);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맹금을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를 사람을 불러오는 이다.”(이사 46,11)

165)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나의 목자.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하고 말하리라.”(이사 44,28)

166)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이사 44,2 각주 참고.

레스도 예수님도 아니요 인치는 지역을 알린 것이다. 페르시아가 땅 끝 땅 모퉁이인가? 진목사의 말 대로라면 계7장 사건이 고레스 왕 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진목사는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는가? 계7장의 해 돋는 곳이 옛 고레스 왕 페르시아(이란, 바사)에서 이루어졌단 말인가? 계7장의 사건을 보지도 듣지도 지시 받지도 못한 자가 왜 본 것같이 거짓말을 하느냐? 여기 보고 들은 자가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보고 말씀하신 해 돋는 동방 땅 끝 땅 모퉁이는 한국이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 돋는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인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라.¹⁶⁷⁾

‘동방’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유사하게 이만희는 요한 묵시록 1장 4절에 등장하는 ‘아시아’에 대해서도 억지스러운 해석을 한다. 그리스도론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곳이 문자 그대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라면, 말세에 그 곳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천국과 예수님도 그 곳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의 배경이 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다 무너지고 현재 그 흔적만 남아있으며 계시록 사건이 나타난 적도 없다. ... 본문에 기록한 아시아는 계시록이 응하는 어느 지역을 비유한 곳으로 실제 소아시아가 아니다.¹⁶⁸⁾

이 일곱교회와 일곱 사자가 문자 그대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라면 왜 비밀이라고 하겠는가? 이들은 육적인 것을 빚댄 장막과 인물로서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 중 하나인 ‘배도의 비밀’이다. ... 이제 그 ‘배도의 비밀’을 요한과 같은 대언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지상 모든 사람은 그에게 증거를 받아야 할 것이다.¹⁶⁹⁾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는 소아시아지역에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으므로 해당 구절들은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그는 그 곳이 한국이라고 주장한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일곱 교회는 어디일까?

167) 이만희·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단논쟁』, 도서출판 성산, 2002, 58.

168) 『요한계시록의 실상』, 52-53.

169) 같은 책, 62.

하나님은 아시아에 출현한 일곱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며 요한의 본바 일곱 교회는 말일에 나타날 예비제단을 환상가운데서 소급하여 미리 보았던 것이다.¹⁷⁰⁾

오늘날에도 일곱 교회의 사자가 먼저 출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에게 쫓겨나는(계12:14) 역사가 있게 되는 것도 세례 요한 때와 동일한 내용의 역사임을 잊지말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일곱 교회와 일곱 별은 종말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입은 이땅의 사명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맹약을 파하고 멸망자 집단에 의해 당했기 때문에 일곱 갈래로 뿔뿔히 흩어진 것이다.¹⁷¹⁾

우리는 사도요한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길 예비 제단으로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단임을 분명히 알았다. 특히 이 예비 제단은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 출현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¹⁷²⁾

이만희가 말하는 일곱 교회, 길 예비제단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며, 일곱 교회의 실상은 각각 유재열(에베소-에페소), 정창래(서머나-스미르나), 김영애(버가모-페르가몬), 신중환(두아디라-티아티라), 백만봉(사데-사르디스), 신광일(빌라델비아-필라델피아), 김창도(라오디게아-라오디케이아) 일곱 사람이다. 그리고 이만희는 자신이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요한 묵시록의 저자 요한과 동일시한다.¹⁷³⁾ 왜 그들이 일곱 교회가 될 수 없는지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에, 여기서는 요한 묵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올바른 해석만을 제시하겠다.

요한 묵시록 1장에서 수신자로 지목되어 있는 교회들은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묵시 1,11)

170) 『계시록의 진상』, 28.

171) 같은 책, 30.

172) 같은 책, 33.

173) 이만희가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신천지 내부에서 발간된 책자들에서도 서로 다르게 적혀있다. 『신천지 발전사』에서는 1980년 9월, 『계시록 완전해설』에서는 1980년 봄, 신천지 초창기 실상 교육 자료에서는 1980년 3월, 『천지창조』와 신현욱 반증책자에서는 1979년으로 되어 있다. <http://blog.naver.com/blusky05292/801736964691>(검색일: 2012.11.15) 참조.

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은 아시아 속주 여기저기에 있던 공동체들로서, 그들이 속한 지역은 에페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 서남쪽의 작은 지방이었다. 묵시록에서 암시되는 것들을 알아들으려면 이 교회들의 지리적이며 역사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일곱’이 충만을 뜻하는 수이기 때문에, 저자가 몇몇 특별한 공동체에만 가르침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⁷⁴⁾ 베자의 아프링기우스는 『묵시록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현세를 뜻하므로, 사도는 단지 일곱 교회나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며, 이 글은 세상이 완성에 이르는 때까지를 포함하여 미래의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글로 이해해야 합니다.¹⁷⁵⁾

곧,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교회는 묵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공동체들이며, 나아가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처럼 신천지에서 말하는 동방의 의인 교리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실상 교리는 이만희를 재림주로 신격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끌어다 붙인 거짓된 교설에 불과하다.

174)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 묵시1,4 각주 참조.

175) 베자의 아프링기우스 『묵시록 주해』 1,4. CCL 107,34-35를 윌리엄 C. 웨인리치, 『요한 묵시록』 교부들의 성경주해 신약성경14, 이해정 역, 분도출판사, 2010, 61에서 재인용.

5. 성령론에 대한 비판

신천지는 성령에 대해 그리스도교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거룩한 영은 모두 성령’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해로부터 ‘천사도 성령이다’, ‘이만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교리들이 생겨나며, 이것은 왜곡된 삼위일체론으로까지 이어진다.

1)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

신천지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하는 말이다.”¹⁷⁶⁾ 다시 말해서 신천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위격으로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聖靈)’을 한자풀이 형식으로 이해하여 ‘거룩한 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만희의 주장을 살펴보자.

한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으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땅을 지었다(사 14:12~15). 죄를 지은 그 천사장과 함께한 영들(계 9:14~16)을 악령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자(벧전 5:8, 삼하 19:22 난하주 참고), 이간자와 분리자라는 의미의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들은 악령과 구별하기 위해 성령이라 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천사들이 출현한 이후 영계는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¹⁷⁷⁾

여기서 이만희는 성령을 ‘악령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거룩한 영들의 통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보혜사 성령)’으로 구분한다.

성령은 일반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파라클레토스]가 있다. 목자도 일반 목자가 있고 약속의 목자(대언의 목자)가 있으며, 교회도 일반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성전이 있다.¹⁷⁸⁾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신천지는 천사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일반

17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177) 『천지창조』, 51.

178) 『성도와 천국』, 227.

성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심지어 이만희는 오순절 성령강림 때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보혜사)이 아닌 '일반 성령'이라고 주장한다.¹⁷⁹⁾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에페 4,4),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1코린 12,4)라고 말한다. 성령이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으로 구분되며 여러 종류의 성령이 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톨릭교회는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¹⁸⁰⁾ '성령'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다.¹⁸¹⁾ '진리의 성령'은 성령께 대한 여러 칭호들¹⁸²⁾ 중 하나이지, '일반 성령'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칭호가 아니다.

이만희는 천사와 성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을 '일반 성령'과 '보혜사 성령'으로 구분하듯이, 천사 또한 '일반 성령인 천사'와 '보혜사 성령인 천사'로 이해하는 듯한 발언도 한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 천사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는 사자라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본문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분명하다.”¹⁸³⁾

성령에 대한 이만희와 신천지의 이해는 완전히 틀렸다. 설혹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영을 '거룩한 영혼(holy spirit)'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Holy Spirit)'과 천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령은 하느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비밀 까지도 통찰하십니다”(1코린 2,11)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

179) 『천지창조』, 419 참조.

180) 『가톨릭교회교리서』, 제685항 참조.

181) 『가톨릭교회교리서』, 제691항 참조.

182)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령'께 대한 칭호는 보호자(요한 14,16,26), 진리의 영(요한 16,13), 약속의 영(갈라 3,14; 에페 1,13), 입양의 영(로마 8,15; 갈라 4,6), 그리스도의 영(로마 8,11), 주님의 영(2코린 3,17), 하느님의 영(로마 8,9,14; 15,19; 1코린 6,11; 7,40), 영광의 성령(1베드 4,14) 등이 있다.

183) 『요한계시록의 실상』, 210.

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마르 13,32; 마태 24,36 참조)고 말한다. 신천지의 주장대로 천사가 성령이라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거짓이 된다.

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1코린 12,11; 에페 4,4 참조), 천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묵시 5,11 참조). 성경에서 성령을 천사라고 표현한 구절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성령은 πνεῦμα(영)로, 천사는 ἄγγελος로 구분되어 표현된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왜 이런 억지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만희를 ‘보혜사’로 신격화하기 위해서이다.

2) 인간 보혜사 교리에 대하여

‘보혜사’(保惠師)는 개신교에서 요한복음 14-16장에 언급되는 ‘보호자’(παράκλητος 요한 14,16.26; 15,26; 16,7) 성령을 일컫는 용어이다. παράκλητος는 신약성경에서 요한계 문헌에만 5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변호자, 협조자, 위로자, 조력자, 옹호자, 소송대리인, 참사, 중개자, 권고자, 강하게 호소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닌 파라클레토스를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¹⁸⁴⁾ 「공동번역」 성서는 이 단어를 ‘협조자’로 번역하였다.

신천지는 ‘보혜사’의 한자를 풀이하여 ‘은혜로(惠) 보호하는(保) 스승(師)’이라고 이해한다.¹⁸⁵⁾ 이만희는 신천지가 보혜사를 한자로만 해석한다는 비난에 맞서 “신천지는 ‘파라클레토스’와 ‘보혜사’, 이 두 단어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¹⁸⁶⁾고 하면서 “은혜로 보호하며 상담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 원어가 지닌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혜사는 대언하는 직책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¹⁸⁷⁾라고 애써 해명하지만, 이전의 이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신천지의 보혜사교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만희는 ‘다른 보혜

184) 이브 콩가르,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1』, 백운철 역, 가톨릭출판사, 2004, 107 참조.

185) 『천지창조』, 415 참조.

186) 이만희, 『예수그리스도의 행진』, 340.

187) 같은 곳.

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혜사는 예수님이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다른 존재이다.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으며, 성도들을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언자 또는 보혜사라고 하였다.¹⁸⁸⁾

요한복음에 4번 사용된 *παράκλητος*는 모두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요한 2,1)라는 구절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¹⁸⁹⁾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παράκλητον*으로, 문맥상 하느님 앞에서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리스어 *παράκλητος*가 지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요한복음의 '보호자'와 요한1서의 '변호해 주시는 분'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이 '다른 보혜사'는 영을 말한 것인가, 육을 말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보혜사는 영과 육,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오는 자는 육이 아닌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다.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대언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할 한 사람(목자)을 택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 목자가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이며 이 땅의 보혜사이다.** ...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는 무슨 관계인가?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한 목자(약속의 목자)를 택하여 대언하게 한다. 즉, **약속의 목자는 보혜사 성령의 대언자이다.** ... 재림 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도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외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시듯,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의 목자 안에 거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¹⁹⁰⁾

188) 『천지창조』, 415.

189) 「개역한글」에서는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다.

190) 같은 책, 416-419.

이만희는 증언부언하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보혜사론’을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보혜사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靈)이다. 영은 혼자서 활동하지 않고 육을 택하여 그 육체 안에서 활동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택하여 머무는 육체가 ‘약속한 목자’이고, 이 목자가 이 땅의 보혜사라는 논리이다. 결국 자칭 ‘약속한 목자’인 이만희 자신이 보혜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요한 14,16)라고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만희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가 제자들의 육체를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혜사이고 약속의 목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영인 ‘παράκλητος’를 받은 육적인 ‘παράκλητος’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렸다(사도 2,1-4 참조). 이 성령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일반 성령’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다.

이만희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¹⁹¹⁾는 말로 ‘육적 보혜사’를 만들어 냈다. 이만희는 “영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가?”¹⁹²⁾ 하고 묻는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사도 8,29; 11,12; 13,2 참조). 이만희의 주장대로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은사]들을 따로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11)¹⁹³⁾라는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육체를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준다는 말인가? 또 세상 창조 이전에 물 위를 감돌고 있던 하느님의 영(창세 1,2 참조)은 도대체 누구의 육체를 타고 있었다는 말인가?

다른 이들에게는 ‘일반 성령’이 임하고 이만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주장도 성경의 증언과는 다르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은 이 땅

191) 같은 책, 417.

192) 이만희·진용식, 앞의 책, 59.

193) 「개역한글」 성경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라고 되어있다.

에서 역사할 한 사람(목자)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너희(ὁμῖν)”(요한 14,16,17)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7)라고 말씀하셨다.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어떻게 이만희가 믿는 이들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신천지의 ‘보혜사 교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세기 중엽(155~160년 경)에 몬타누스(Montanus)는 자신이 성령의 대변자이며, 요한복음에 약속된 ‘*παράκλητος*’가 자기 안에 육화되었다고 주장하다가 177년경에 소아시아의 주교들에 의해 파문되었다.¹⁹⁴⁾ 한국에서도 이미 이만희 이전부터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다¹⁹⁵⁾.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거쳐 온 전도관, 장막성전 등에서 배운 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가 배운 교리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각하게 왜곡한 그릇된 교리, 이단교리이다.

194) “몬타누스주의”, 『한국가톨릭대사전』 제4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2732-2733 참조.

195) 이만희와 같이 장막성전 출신인 김풍일(새광중앙교회 또는 새빛등대중앙교회, 1979년)과 구인회(천국복음전도회, 1972년)도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했으며,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 JMS, 1980년)과 이영수(한국기독교에덴성회, 1973년)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을 성령하나님·보혜사라고 주장한다.

6.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¹⁹⁶⁾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천지의 그릇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왜곡과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신천지의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교육 초기에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답하는 것을 사실상 꺼린다. 다음과 같은 ‘난해질문’에 대한 문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말씀을 배우는데 ... 삼위일체를 왜 부인하느냐며 물어오는 사람은?

1. ... 삼위일체를 부인한 적은 없다. 다만 삼위일체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다. ...
3.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삼위라는 것은 세 자리를 두고 말하며 일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요5:7)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세존재가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
5.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을 해명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에 또 비유를 인정할 때 설명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¹⁹⁷⁾

신천지의 왜곡된 삼위일체론은 그들 교리의 특징인 비유풀이와 한자(漢字)풀이 식의 해석에서 기인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삼위일체란 무엇을 말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인가?

삼(三)은 셋을 말함이고, 일(一)은 하나를 말함이며, 체(體)는 몸을 말함이고, 위(位)는 자리를 말한 것이다. 삼위일체의 뜻은 세 위가 한 몸이라는 말이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는 그 셋이 일체라는 말이 아니다. ...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성자)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삼위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영으로 있을 때는 같은 성령이로되, 그 위는 각각 다르고 그

196)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32항

197) 광주 베드로지파 교육부, 『난해 질문·문답 정리』, 79-80.

영체도 각각 개체로 있는 것이다. ... 재림의 역사인 계시록 성취 때[이 시대를 말함]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은 다 성령이로되 그 영체가 삼위일체라고 할 수 없다. 재림의 역사인 계시록 때는 이긴 자 위에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계 3:12), 그 소속 12지파 성도들 이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계 14:1, 22:4). 또 성경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을 뿐, 삼신이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요 삼신(三神)이 아니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해야 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¹⁹⁸⁾

신천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성부, 성자, 성령을 합하여 일체라고 주장한 말”로 여긴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이 성자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삼위일체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삼위가 각각 영으로 있을 때(신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혼의 부활’로만 여기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영으로 계신다고 가르친다)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성령이고, 그 자리(位)가 다르며, 영체도 하나가 아닌 각각 개체로 있으므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론한다. 또한 근거 없는 ‘삼신(三神)’이라는 말을 끌어와서 마치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삼신론¹⁹⁹⁾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신천지의 주장에 담긴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삼위일체’ 라는 용어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대하여

신천지는 삼위일체(三位一體)를 한자풀이 하여 “삼(三)은 셋을 말함이고, 일(一)은 하나를 말함이며, 체(體)는 몸을 말함이고, 위(位)는 자리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삼위일체에서 ‘위’는 ‘자리’가 아니라 ‘위격(persona)’이라는 철학적 개념이다. 또한 ‘체’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本體, substantia)’를 뜻한다. 즉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육체 안에 있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이다. 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

198) “삼위일체론”, 진짜 바로알자 성경과 신천지, <http://cafe.daum.net/scjschool/E3qZ/207> (검색일:2013.11.13.).

199) 가톨릭교회는 ‘삼신론’(三神論)적 삼위일체론을 배격한다. “삼위는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53항 참조.

는 대로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게다가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니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대로 알 리가 없다. 이만희와 신천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다.

2)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성자)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삼위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영으로 있을 때는 같은 성령이로되, 그 위는 각각 다르고 그 영체도 각각 개체로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체(體)’를 ‘육체’로 이해하면서 생긴 그릇된 주장이다. 이는 또한 누군가의 육체에 성부와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앞서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듯이, 신천지는 하느님께서 택하신 인간 예수님의 육체에 성령이 임해서 그 시대의 목자로 활동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 분의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성령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천지 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악령’의 반대개념으로서 ‘성령’이다. 그래서 “각각 영으로 있을 때는 같은 성령이로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그 위는 각각 다르고”라는 주장은, 사도행전 7장 56절과 요한 묵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위)가 각각 다르다’는 말인데, 이것은 ‘위’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억지주장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하실 때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언제나 각각의 위격으로서 실제적으로 구분되어 계신다.²⁰⁰⁾ ‘위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쓰인다.²⁰¹⁾

200) 같은 책, 제254항 참조.

201) 같은 책, 제252항 참조.

이만희는 요한 묵시록 3장 21절에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묵시 3,21)라는 구절을 삼위일체라고 이해한다.²⁰²⁾ ‘어좌(보좌)=자리=위’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성부)의 어좌, 예수님(성자)의 어좌, 승리하는 사람(이긴 자)의 어좌가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펼친다. 그러나 ‘위’는 ‘자리’가 아니라 ‘위격(persona)’임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또 요한 묵시록 3장 12절을 풀이하면서 “3장 12절에는 이긴 자에게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일체(一體)에 위(位)가 셋이니 이것이 말하자면 삼위일체이다”²⁰³⁾ 라고 말한다. ‘이긴 자’라는 한 육체(일체)에 세 이름, 곧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이긴 자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이만희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령, 이긴 자’가 이루는 삼위일체일 때도 있고, ‘성부, 성자,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의 육체 안에서 이루는 삼위일체(사실 이것은 사위일체라고 해야 더 옳을 것이다)일 때도 있다. 말하자면 신천지의 삼위일체 교리는 끼워 맞추기 식의 교리이다. 이만희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통해 결국은 ‘이긴 자가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신천지 도마지파에서 나온 『난해질문과 해답』을 보면 그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72. 초림 때도 보혜사 성령이 있었다면 초림 때도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습니까?

☞ 초림 때 보혜사와 마지막 때 다른 보혜사는 그 역할이 각각 다르며, 삼위일체란 세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림 때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을 비유로 감춰두시고 가셨으며, 오늘날 오신 다른 보혜사는 그 비유를 계시하여 밝히 깨닫게 하는 보혜사이며 또한 그가 계시록 2,3장에 기록된 열 두 가지 복을 받는 이긴자이다. **이긴자가 받는 복 중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하였으니 완전한 삼위일체는 이긴자가 등장하는 시대에 있어지는 것이다.**²⁰⁴⁾

202) 『계시』, 81-82 참조.

203) 같은 책, 82.

3)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

지금까지 신천지가 삼위일체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가톨릭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며, 다른 모든 신앙 신비의 원천이다.²⁰⁵⁾

초세기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시키는 오류와 이단들로부터 이 신앙을 지키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철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체(substantia)’, ‘위격(persona 또는 hypostasis)’, ‘관계(relatio)’등의 고유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삼위일체 교의를 정립시켰다. ‘실체’라는 단어는 ‘본질(essentia)’이나 ‘본성(natura)’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단일성에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며, ‘관계’라는 단어는 그 위격들의 구분이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 사이의 관계에서 존립한다는 것을 지적할 때 사용한다.²⁰⁶⁾

이렇게 정립된 삼위일체 교의는 다음과 같다. 삼위(성부, 성자, 성령)는²⁰⁷⁾ (세 신들이 아니라) ‘한 하느님’이다. 삼위는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같은 본성을 지니신다. 한편,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변신(變身)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 위격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²⁰⁸⁾

이를 가톨릭교회교리서 266항-277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04) 도마지파 전도기획부, 『난해질문과 해답』, 73.

205)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32항-제234항 참조.

206) 같은 책, 제251항-제252항 참조.

207) 가톨릭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외에 하느님의 다른 위격을 말하지 않는다.

208) 같은 책, 제253항-제255항 참조.

가톨릭 신앙은 이러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송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그 실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세 위격은 하시는 일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단일한 활동에서, 특히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각 위격은 삼위 안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²⁰⁹⁾

209) 같은 책, 제266항-제277항.

7.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천지 교리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신인합일과 육체영생’에 대한 교리, ‘14만 4천 명’ 교리,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일명 ‘구원노정’ 교리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단적인 주장을 살펴보고,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겠다.

1)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주장

신천지의 대표적인 구원론은 ‘비유를 알아야 구원 받는다’는 주장이다. 신천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긴 자가 없으면 나라도 제사장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이다.”²¹⁰⁾ “이긴 자에게 가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는 것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된다.”²¹¹⁾ “오늘날 누구든지 신천지를 통하지 않고는 정통도 구원도 천국도 없다. 신천지를 통해서만 천국과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 수 있다.”²¹²⁾ 이처럼 신천지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들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계시를 받은 목자에게 배워야 ... 구원을 받을 수 있다”,²¹³⁾ “이 계시는 마지막 계시요, 이 계시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계시가 오늘날 신천지예수교에 왔다”²¹⁴⁾는 주장과 통한다. 즉, 신천지에 와서 계시를 받은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이며 이긴자인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만희도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주 재림 때 주께서 택한 목자와 성전이다(계10:5). 이 목자와 성전을 알리기 위해서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요 나타나는 때와 장소를 미리 성경에 예언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을, 말씀은 깨달아 믿는 자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²¹⁵⁾

21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Ⅱ』, 282.

211) 같은 책, 45.

212) 같은 책, 204-205.

21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72.

2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Ⅱ』, 34.

또 부활에 대해 말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말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라 하였으니 오늘날 우리의 흠 같은 육체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아 생령이 되는 것이 곧 재창조요 부활인 것이다.²¹⁶⁾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을 (문자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자신의 교리를 깨닫는 것이 부활이라는 주장이다.

신천지는 입문 초기부터 ‘성경공부’를 시키면서 암기하고 시험을 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이 과정들은 성경이 마지막 때까지 봉한 책이므로 누군가가 와서 계시를 받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재림 때 한 목자가 나타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국(終局)에 가서는 지금이 재림 때이며, 교주 이만희를 계시 받은 약속한 목자로 증거하는 수순을 밟아간다.²¹⁷⁾

이러한 신천지의 구원관은, 이원론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도 믿음도 아닌 신비적인 앎과 깨달음(靈知, γνωσις)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던 영지주의자들²¹⁸⁾과 유사하다.

만일 신천지의 주장대로 구원이 이긴 자가 받은 계시를 배우는 것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업적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신체적, 지적 장애나 기타의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배울 수 없는 이들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은 구원이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오며,²¹⁹⁾ 하느님의 구원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죽음을 통해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²²⁰⁾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215) 『성도와 천국』, 95.

216) 같은 책, 96.

217) 신현욱, “신천지 완전 해부(3)”, 『월간 현대종교』, 2013년 6월호, 68 참조.

218) “그노시스”, 『한국가톨릭대사전』 제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945-948 참조.

219)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9항 참조.

220) 같은 책, 제599항-제617항 참조.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²²¹⁾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가르친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²²²⁾을 굳게 믿어 고백한다.

2) 신인합일과 육체영생 교리

다음으로 ‘신인합일’(神人合一)과 ‘육체 영생’ 교리를 살펴보겠다.

이만회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육계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들과 육체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다.²²³⁾

그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의 형태는 이만회에게는 하느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고, 신천지의 12지파장들에게는 영계의 12제자들의 영이,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영계에 대기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묵시 6,9에 나오는 순교한 영들이라고 하나, 이들이 144,000명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이 들어와 합일되는 것이다.²²⁴⁾

이처럼 신천지 신도들은 인장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자)가 144,000명이 되면, 영계(靈界)에서 대기하고 있는 144,000명의 순교자들의 영(신천지는 이 영들을 ‘순영씨’라고도 부른다)과 육계(肉界)의 144,000명의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합일(合一)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의 몸이 죽지 않는 영생불사(永生不死)의 몸이 되어 천 년 왕국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신인합일을 ‘영과 육의 결혼’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21) 같은 책, 제161항.

222) 같은 책, 제389항; 제457항; 제594항; 제2812항 참조.

223) 『천지창조』, 48.

224) 『요한계시록의 실상』, 433-436 참조.

신천지가 신인합일과 육체영생 교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은 요한 묵시록 20장 4절이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개역한글」 묵시 20,4)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 즉 신천지에서 말하는 ‘순교자들의 영’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즉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신인합일 되어 “살아서” 천 년 동안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이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이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묵시 20,4)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공동번역」 묵시 20,4)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개역개정」 묵시 20,4)

그리스어 성경 원문은 다음과 같다.

Καὶ εἶδον θρόνους καὶ ἐκάθισαν ἐπ’ αὐτοὺς καὶ κρίμα ἐδόθη αὐτοῖς, καὶ τὰς ψυχὰς τῶν πεπελεκισμένων διὰ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Ἰησοῦ καὶ διὰ 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οἵτινες οὐ προσεκύνησαν τὸ θηρίον οὐδὲ τὴν εἰκόνα αὐτοῦ καὶ οὐκ ἔλαβον τὸ χάραγμα ἐπὶ τὸ μέτωπον καὶ ἐπὶ τὴν χεῖρα αὐτῶν. καὶ ἔζησαν καὶ ἐβασίλευσαν μετὰ τοῦ Χριστοῦ χίλια ἔτη.
(「GNT」 ΑΠΟΚΑΛΥΨΙΣ 20,4)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두 부분이다. 먼저, 신천지에서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인들’로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아니라 한 주체라는 점이다. 「개역한글」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또”라는 접속사로 이어져서 마치 두 주체라고 오해될 수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한 문장으로서, 이 구절에서 쓰인 οἵτινες는 관계대명사 ὅστις의 남성 복수 형태로서 이 문장의 주어 πεπελεκισμένων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두 번째로, 개역한글판 성경의 “살아서”라는 번역을 토대로 신천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신인합일 되어 영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개역한글판 성경의 오역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다.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살아서”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 ζήσαν는 ‘살다(live), 다시 살다(live again, come back to life)’ 등의 뜻을 지닌 ζάω의 3인칭 복수 단순과거 형태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이를 ‘살아서(lived)’로 번역하고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단어는 이미 목이 잘려 죽은 이들의 영혼들에게 사용된 동사이고, 이 대목이 ‘부활’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살아나서(come back to life)’라고 번역 하는 것이 옳다.²²⁵⁾ 만일 이 구절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육체로 영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바로 다음 구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225) 영어성경들 중에서 ‘The New American Bible’, ‘The New Jerusalem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등은 ‘came to life’로, ‘American Standard Version’, ‘King James Bible’ 등은 ‘lived’로 옮겼다.

살지 못하더라”(「개역한글」 묵시 20,5)라는 말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육체로 영생하지 못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묵시 20,5)라는 가톨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 개신교의 「새번역」 성경도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새번역」 묵시 20,4)

뿐만 아니라 「개역한글」 성경의 묵시 20,4은 시체가 불분명한데, 자칫 20,6²²⁶과 연결되어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묵시 20,6의 시체는 미래시제이다). 그러나 위의 그리스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묵시 20,4의 시체는 ‘단순과거’가 맞다. 그들(순교자들)이 살아난(ἐζήσαν) 것도, 다스린(ἐβασίλευσαν) 것도 모두 단순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이다. 가톨릭 「성경」은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묵시 20,4,6) 라고 시체를 분명히 구분하여 번역해 놓았다.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천지의 ‘영계의 순교자들과 육계의 신천지 신도들이 신인합일 되어 육체로 영생하며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개역한글판 성경의 해당 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류이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미 「개역한글」 성경을 근거로 육체영생 교리를 가르쳐왔고,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면 그들의 핵심교리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굳이 「개역한글」 성경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22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개역한글」 묵시20,6)

이미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육체적으로 사망하였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 인물’들도 사망하였다²²⁷⁾. 그러나 아직도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신천지가 이해하는 식의 ‘신인합일’이나 ‘육체영생’을 믿지 않는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람은 단 한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히브 9,27)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부활신앙이다. 그리스도교는 ‘타인의 영과 자신의 육체의 합일²²⁸⁾’이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함²²⁹⁾’을 믿지 않고,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주장은 그리스도교 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14만 4천 명’ 교리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14만 4천 명’ 교리이다. 신천지 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등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강조한다. 요한 묵시록 7장 4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단들의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신도들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철회하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는 이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또 신천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으로서 영생하는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다.²³⁰⁾

신천지는 2013년을 ‘십 사만 사천 완성의 해’로 삼았다. 신천지 수뇌부는 수년 째 ‘2-3년 안에 이루어진다’, ‘곧 완성 된다’ 등의 말로 신도들을

227) 이만희와 함께 ‘두 증인’(묵시 11장 참조)의 실상이었던 홍종효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밀 한되 보리 석되’(묵시 6,6 참조)의 네 명의 실상 인물들(이들은 본인도 영생을 하고, 영생하는 144,000명을 만들어야 하는 ‘영원한 씨’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중 한 명이었던 윤 모 교육장도 사망하였다.

228) 이것은 차라리 사머니즘에 가깝다.

229) 이미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영생교’의 조희성 등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육체의 영생을 부르짖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자신마저 사망했다.

230) 최삼경 외, 『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기독교포털뉴스, 2013, 175-176 참조.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해 왔다. 신천지가 말하는 ‘첫째 부활’, ‘신인합일’은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포교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만희의 주장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인장을 받은]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 십사만 사천 명은 새로 창조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사제] 직책을 맡을 목자이다. ... 하나님께서는 이천 년 간 존속한 기독교 세계를 끝내시고 7장과 같이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새로운 제사장이 될 십사만 사천 명을 먼저 인 치신다[인장을 찍으신다].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십사만 사천 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야 한다. 초립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참 자녀가 되었는데, 계시록 성취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하는 참 선민이 된다.

계시록 성취 때에 성경에 약속한 나라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선민도, 정통도 될 수 없다. ... 만일 이 땅에 영적 새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나타났는데도 자신이 속한 지파가 어딘지를 모른다면 이방인이라는 증거이다. 이방인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²³¹⁾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 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9절의 ‘이 일 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 명과 큰 환난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해주는 경계가 된다.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계 14:1~5) 영적 새 이스라엘의 목자(제사장, 왕)가 되고,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성도(백성)가 된다.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순서도 먼저는 14만 4천 명이며, 그 다음이 흰 옷 입은 큰 무리이다. 7장의 인치는 사건은 오늘날 과천 소재 신천지에서 이루고 있다.²³²⁾

요약하자면, 하느님께서 2000년 동안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교 세계를 끝내시고 신천지를 통해 ‘새 영적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14만 4

231) 『요한 계시록의 실상』, 160-161.

232) 『천지창조』, 205.

천 명에게 인장을 찍으시는데, 그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이 된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희고 긴 겹옷을 입은 무리’들은 14만 4천 명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들로써, 신천지 신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

또한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계의 순교자들의 영’의 숫자이기도 하다. 이만희는 요한 묵시록 20장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없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들이다. 19장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이 성령들이 신랑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곧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인 치는 주의 제단에 동참한 십사만 사천의 신부들이다. 거룩한 성령이요 신랑인 십사만 사천의 영들과 이 땅의 거룩한 자 십사만 사천의 육신을 가진 신부들이 각기 한 쌍을 이루어 혼인 일체가 된다.²³³⁾

요한 묵시록 20장 4절이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신도들의 신인합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다만 여기서는 이만희와 신천지가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실제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요한 묵시록 7장의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구절에서 “십사만 사천”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 숫자는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을 계산하여 나온 숫자인데(묵시 7:5-8 참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의미하듯이 ‘12’는 성경에서 충만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이다. 그리고 ‘144,000’은 ‘12×12×1,000’, 즉 완전수 12에 또 완전수 12를 곱하고, 거기에 완전수인 1,000을 곱한 숫자이다. 따라서 ‘144,000’은 하느님 백성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인장(인호)을 받는다. 이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을 위해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²³⁴⁾ 이 인호를 받는 이

233) 『계시록의 진상』, 301.

234)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272항-제1274항 참조.

들의 숫자는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1티모 2,4 참조),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요한 3,16) 하셨기 때문이다.

또 신천지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십사만 사천 명”과 “흰 무리(회고 긴 겹옷을 입은 무리)”는 동일한 무리(群)라고 보아야 한다. 신천지가 구분의 경계로 삼는 “이 일 후”(「개역한글」 목시 7,9)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의미한다.²³⁵⁾ 그리스어로는 *μετὰ ταῦτα*인데, 가톨릭 성경은 “그다음에”로 번역하였으며, 「NAB」나 「NRS」 등의 영어성경들은 “After this”라고 번역하였다. 가톨릭 성경의 소제목들이 의미하듯이 요한 묵시록 7장 4-8절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는 표상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9-17절은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2008년에 신천지는 ‘흰무리’에 대한 교리를 변경하였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를 믿지 않았다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신인합일되어 영생이 시작된 후에 회개하고 신천지로 들어오게 될 이들을 ‘흰무리’라고 일컫는다. 2008년 이전에는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신천지에 들어온 ‘흰무리’라 할지라도 1000년 동안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1000년 이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2008년 12월 26일, 당시 총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던 한 교육장은 ‘12지파 강사 전도사 교육’을 통해 신천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교리들을 수정하고 정립(正立)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장은 이만희 총회장이 내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1000년 기간 안에 14만 4천 명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흰무리도 1000년 안에 영생을 하고 세상의 왕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²³⁶⁾고 주장했다. 기존의 교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교

235) 최삼경 외, 앞의 책, 178 참조.

236) “흰무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해서 영생을 한다고 열두 지파 강사 전도사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스운 것은 144,000명은 순교의 영을 덧입고 영생하는데, 144,000명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흰무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차라리 흰무리가 되어 영생하는 것이, 생판 모르는 순교한 영혼을 덧입고 영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흰무리도 영생을 하고 세상의 왕이 되고 첫째부활에도 들어가는데 굳이 144,000명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갑자기 없어진

리를 발표한 것이다.²³⁷⁾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인 맞음(인장을 받음)’의 기준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신천지에서 ‘인 맞음’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수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구되는 ‘인 맞는 조건’은 상황마다 달라진다. ‘성경공부를 잘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학원에 빠지지 않고 숙제와 암기를 잘 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료 시험을 잘 쳐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명 이상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천지 설교와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²³⁸⁾

후자들은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14만 4천 명이 되더라도 신천지 신도들이 믿고 기대한 일들(신인합일, 육체영생)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찼다고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14만 4천 명이 다 차더라도 그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마태 25,32 참조) 그중에 양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신천지의 ‘14만 4천명’ 교리와 ‘인 맞음’ 교리는 요한 묵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긴장감을 조성하여 신도들을 겁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 배도-멸망-구원의 ‘구원노정’ 교리

‘배도-멸망-구원’의 노정(路程) 교리는 신천지의 대칭구조의 교리를 다루면서 살펴본 ‘창조와 재창조’ 교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노정)에서 ‘배도(背道)’와 ‘멸망’과 ‘구원’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구원노정’ 교리이다. 신천지는 “계시록의 핵심은 12장에서 본 배도자·멸망자·구원자(이긴 자),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몫을 그대로 행하는 사건이다”²³⁹⁾라고 말한다. 이 교리의 결론은 명백하

것입니다.” 지명환, “신천지의 교리 변개”, 『월간 현대종교』 2012년 11월호, 54. 글쓴이 지명환은 전직 신천지 강사이다.

237) 같은 책, 53-54 참조.

238) 같은 책, 55 참조.

239) “배도자·멸망자·구원자는 누구인가”, 진짜 바로알자 성경과 신천지, <http://cafe.daum.net/scjschool/E3qZ/536>(검색일: 2013.12.1).

다. 바로 이만희가 배도자와 멸망자 이후에 나타난 ‘구원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배도-멸망-구원’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보자.

성경에 기록된 주(主) 내용에는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가 있고, ‘창조의 사건’이 있고, ‘배도·멸망·구원의 사건’이 있다. 본문(살후 2:1-4)이 말한 배도자는 누구이며, 멸망자는 누구이며, 구원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본 바가 있으나, 신약에 예언된 배도자·멸망자·구원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도(道)를 이행하다가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가 배도자(背道者)이다. 멸망자는 누구인가를 멸망시켜야 멸망자가 된다. 구원자는 멸망 받은 사람을 구원함으로 구원자가 된다. 배도·멸망·구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마음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사실들을 알려 줄 사람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이다.²⁴⁰⁾

신천지가 ‘배도-멸망-구원’의 노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테살로니카 2서 2장 1-4절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2테살 2,1-4)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 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240) “배도·멸망·구원의 사건”, 진짜 바로알자 성경과 신천지, <http://cafe.daum.net/scjschool/E3qZ/401>(검색일2013.12.1).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개역한글」 2테살 2,1-4)

여기에 등장하는 ‘배교(배도)’, ‘멸망’,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주님의 날’이 ‘배도·멸망·구원’이다. 신천지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노정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는데, ‘창조와 재창조’ 교리가 잘못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배도·멸망·구원’ 교리에만 집중하겠다. 신천지와 이만희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배도자는 아담, 노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세레자 요한 등이다(세레자 요한을 ‘배도자’라고 배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또 노아의 세계를 멸망시킨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는 이방국가들이다.²⁴¹⁾

그러나 신천지의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교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만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배교)’의 의미를, 그리고 테살로니카 2서에 등장한다는 ‘멸망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다면 신천지의 ‘배도-멸망-구원’ 교리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음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테살로니카 2서가 말하는 ‘배도자’는 ‘배교자’이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ἀποστασία* 라고 되어있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배교(背敎)’를 뜻한다. 그러나 이만희는 ‘배도’와 ‘죄’를 혼동하고 있다. 배교가 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죄가 곧 배교는 아니다. 아담이나 노아, 모세, 여호수아 등의 구약의 인물들이 배교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이만희는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세계를 멸망시키시고 떠나셨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배교자가 아닌, ‘믿음의 조상’이다.

설혹 배도와 죄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영적 이스라엘(교회)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구원자(이만희)를 택하셔서 새 영적 이스라엘(신천지)을 창조하신다는 주장도 성경의 증언과는 전혀 다르

241) 『천지창조』, 132-153 참조.

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히브 9,28)라고 성경은 말한다.

또한 신천지는 “멸망자는 누구인가를 멸망시켜야 멸망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테살로니카 후서 2장에 언급되었다고 여기는 ‘멸망자’는 ‘멸망시키는 자’가 아닌,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이다. 그리스어 원문의 *ὁ υἱὸς τῆς ἀπωλείας*는 직역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가톨릭 「성경」은 “멸망하게 되어있는 그 자”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은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 「200주년 신약성서」와 「개역한글」, 「개역개정」은 “멸망의 아들”로 번역하였다. 영어성경들도 “the one doomed to perdition”(「NAB」), “the one destined for destruction”(「NRS」)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멸망시키는 자’라는 언급은 없고, 암시되어있지도 않다. 그는 ‘멸망할 자’이다. 바오로 사도는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법자, 곧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를 당신의 입김으로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한다(2테살 2,8 참조). 따라서 ‘멸망자’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한 신천지의 주장은 분명한 오류이다.

신천지가 배도와 멸망 이후에 온다고 주장하는 ‘구원자’에 대한 이해 또한 명백히 잘못되었다. 테살로니카 2서에서 ‘오시는 구원자’는 분명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2테살 1,7) 선택한 약속의 목자의 육체에 임하신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처럼 신천지의 ‘배도-멸망-구원’의 노정 교리는 오류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이만희는 오히려 테살로니카 2서 2장이 말하고 있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올려 “신으로 자처”(2테살 2,4)하는 “무법자”에 가깝다.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며 신천지와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장하는 이만희는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2테살 2,2) 말하는 선동가이다.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는 누구인가? 신천지는 그 실상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하늘의 빛으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다.

그가 신앙을 하게 된 것은, 기도 중 3일 간 별을 만났고 별의 인도로 천인(天人)을 만났으며 하나님께 피로 충성을 맹세함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돌아가 7년 간 있게 되었다.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을 할 때이다. 7년이 되는 해, 하늘의 구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끌려 온 곳이 이전에 신앙 생활을 하던 장막성전이었다. 주님의 지시대로 장막성전의 일곱 별이라 하는 일곱 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계시록 2, 3장과 같이 하였다. 일곱 사자는 편지를 보낸 청년과 그 편지 내용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곱 사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일곱 사자는 1966년 동맥을 잘라 링거2병에 피를 받아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였고, 그 피는 성도들의 사령장에 십자가를 그려 준 언약의 피였음) 저버리고, 장로교 교단 등 일곱 교단 목자와 언약하고 그 소속이 되었다(일곱 교단 목자는 한국에서 손꼽는 큰 교단의 일곱 목자임). 이 때는 1981년이었고, 일곱 교단 목자들은 전(前) 모(謀) 대통령의 권력에 힘입어 청지기교육원을 세웠고, 이 청지기교육원은 전국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의 권세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관하였다.

이들이 ‘이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장막성전에 접근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성전을 그들의 세력으로 삼키게 된 것이다. 이 해 초(初) 이방 목자들이 장막성전(전국에 약 80개의 지교회가 있었음) 성도들을 과천 본부 성전에 전원 소집하고, 이 날(주일날)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자기들의 교단, 교법과 교리를 인정하는 맹세의 표를 받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장막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건이다.

이 날 청지기교육원 원장이 전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을 들고 장로교 교단과 교법과 교리를 인정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으며, 이마에 안수받았으니, 이것이 곧 성도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었다.

성도들은 장로교 교단과 교법과 교리를 인정한 후 짐승 같은 침략자요 침해자에게 경배하였다. 이 날 이것이 **장막 성도들의 배도**였고, 또 이방 일곱 교단 목자들은 장막성전과 그 성도들을 멸망시켰으니 **멸망자**이다. 이 사건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요, 침노한 멸망자가 거룩한 곳

단상에 서는 사건이었다(마 24:15, 29, 계 6:12-14, 계 13장).

계시록 2, 3장에서 편지한 청년은 이 일을 현장에서 보고 들었으며, 예언과 그 실상을 보고 듣고 지시받은 대로 증거하였으니, 이 청년이 곧 약속의 목자요 구원자이다.²⁴²⁾

즉, ‘배도자’는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이고, ‘멸망자’는 청지기교육원의 목사들이며²⁴³⁾, ‘구원자’는 이만희이다. 선민이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장로교(이만희는 장로교를 ‘이방 교권’이라고 한다)로 변하게 된 것이 ‘배도’이고 ‘멸망’의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라고 볼 수 없는 사이비 종교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선민’으로 전제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며, ‘배도-멸망-구원’ 교리가 거짓임이 밝혀졌으니 이 (자칭)실상들도 모두 거짓이다.

흥미로운 점은, 신천지가 이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세례자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태오복음 11장의 내용을 그 근거로 든다. 이만희의 주장을 들어보자.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시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했다’고 하셨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 밖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례 요한을 순교자로 추대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 세례 요한을 천국의 외인(外人)이라 하신 것은 그가 처음 믿음을 버리고, 본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배도자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²⁴⁴⁾

여기서 이만희 특유의 말 바꾸기가 잘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에 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242) “배도자·멸망자·구원자는 누구인가”, 진짜 바로알자 성경과 신천지, <http://cafe.daum.net/scjschool/E3qZ/536>(검색일: 2013.12.3). 내용이 길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계시록의 실상’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생략하지 않고 인용하겠다.

243) 이 일곱 명의 목사들(탁성환, 백동섭, 김정두, 김봉관, 한의택, 원세호, 탁명환)을 신천지는 목시 13,1의 “일곱 머리”의 실상이라고 가르친다. 신천지에서는 이 일곱 머리가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열 뿔(장막성전출신 10명의 장로)과 힘을 합쳐서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고 가르쳐왔는데, 후에 이 목사들이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음이 밝혀지자 ‘일곱 머리가 장막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교리를 바꾸었다. 지명환, 앞의 책, 51 참조.

244)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92.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마태 11,11)고 하셨지, 그를 외인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시작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했다”(「개역한글」 마태 11,12)는 말씀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마태 11,12)는 뜻이지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를 침노(侵擄)했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을 받아먹고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하는 이만희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은 배도자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선구자인 ‘엘리아’라고 하셨다(마태 11,14; 마태 17,11-13; 말라 3,23 참조). 만일 세례자 요한이 배도자였다면,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루카복음사가가 굳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즈카르야의 입을 빌려 세례자 요한을 두고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루카 1,76-77)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가 세례자 요한을 배도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만희는 유재열을 ‘세례자 요한’으로 칭한다. ‘배도자-구원자’, ‘세례자 요한-예수님’, ‘유재열-이만희’의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이다.

박태선의 전도관 출신인 영생교 교주 조희성은 박태선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였고, 통일교 출신인 JMS교주 정명석도 문선명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였다.²⁴⁵⁾ 이만희도 같은 논리로 유재열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칭하며 세례자 요한과 유재열을 ‘배도자’로 만들고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운 것이다.

245) 김성중,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36 참조.

5)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원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주장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성경과 성전의 두 가지 계시원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마침이시다. 세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업적으로 창조되었고,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날’이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싸여 오셔서 역사 안에서 밀과 가라지처럼 함께 자란 악(惡)에 대한 선(善)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의 강생으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는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며, 종말에 완성되어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안에 신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救贖)되어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된’(에페 1,4 참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 ‘어린양의 신부’(묵시 21,9 참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묵시 21,10-11 참조)으로서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²⁴⁶⁾

공심판 후에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될 것이다. 인류와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신비로운 새로움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 묵시 21,1 참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짓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묵시 21,4).²⁴⁷⁾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 제39항은 “우리는 땅과 인류가 완성되는 때를 모르며, 우주 변혁의 방법도 알지 못한다. 죄로 어지러진 이 세상의 모습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정의가 깃들

246)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98항; 제680항-제682항; 제865항 참조.

247) 같은 책, 제1042항-제1050항 참조.

이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을 마련하시리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 행복은 인간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평화의 모든 열망을 채우고 또 넘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죽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 지으며, 죽음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긴다.²⁴⁸⁾

신약성경은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죽은 뒤 곧바로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반복하여 이야기 한다(마태 16,26; 루카 16,22; 23,43; 2코린 5,8; 필리 1,23; 히브 9,27; 12,23 참조). 이것이 ‘사심판(私審判)’이다.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셈 바치는 사심판으로 그 불멸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값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가는 정화를 거치거나(연옥),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천국),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다(지옥).²⁴⁹⁾

최후 심판에 앞서, 죽은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이다(요한 5,28-29 참조).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원히 벌 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마태 25,31-46 참조).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이루어 질 것이며, 그 시간과 날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마태 24,36; 마르 13,32 참조). 최후 심판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며, 그분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아가 8,6 참조) 드러내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자비의 때에, 구원의 날에”(2코린 6,2)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하시는 호소이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희망(티토 2,13 참조)을 알리는 것이다.²⁵⁰⁾

248)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020항 참조.

249) 같은 책, 제1021항-제1022항 참조. ‘죽음’, ‘심판’,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해서는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 가톨릭교회의 사말교리(四末敎理)』,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을 참조하라.

250)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038항-제1041항 참조.

따라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설립으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며, 신천지 교리를 배워 구원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인합일되어 육체로 영생하게 된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적 종말론과는 거리가 멀다.

V. 결 론

지금까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리를 계시론, 성경관,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의 범주에서 살펴보면서 그 명백한 이단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신천지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 계시하신 것들, 특히 성경의 최종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그 교리들 대부분이 신천지 고유의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전에 존재했던 (그리고 이만희가 거쳐 온) 이단·사이비 종파들이 주장했던 것이며, 하나 같이 교주를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신천지의 교리는 잘못된 성경해석과 조작된 실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이렇다. 즉,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약속의 목자가 올 것을 예언한다. 신약에 약속된 목자는 이만희이다. 그는 이 시대의 구원자, 육적 보혜사이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신약에 약속된 구원의 처소이며,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약속한 목자와 약속한 성전을 찾아와 배우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신천지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교리가 그리스도교 정통교리와는 거리가 멀다. 영지주의, 양자설, 몬타누스주의, 통일교 교리와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의 교리 등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 동안 교회를 어지럽히던 다양한 이단설들이 신천지 교리에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들이 한 가지 목적, 즉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그들은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신천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이미 예수님의 영이 약속의 목자의 육체를 통해 이 땅에 재림하셨으며 그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곧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는 ‘서기’(AD)가 아

나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렸다는 ‘신천기(新天紀)’를 자체적인 연호(年號)로 사용한다. 신천기 원년은 이만희가 신천지 교회를 설립한 1984년이다.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서 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계약을 ‘옛 언약’으로, 예수님을 ‘선천’(先天) 시대의 구원자로 치부해 버리고 이만희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재창조’, ‘새 언약’, ‘후천’, ‘약속의 목자’를 내세우는 사이비 종교를 그리스도교라 말할 수는 없다.

이만희는 이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을 구원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사생활(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²⁵¹⁾ 그러는 동안에도 신천지 신도들은 그에게 충성하면서 가정, 직장, 학교도 포기하고 포교활동에 매달리고 있으며, ‘내 자리 마련’, ‘총회 본부와 지교회(枝教會) 성전 신축’ 등을 이유로 거액의 헌금을 바치고 있다.²⁵²⁾ 이것은 가히 이만희가 성경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신천지는 교리 면에서 보나 실천적인 면에서 보나 ‘사이비 종교’임이 분명하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2012년 11월에 총회의 24개 핵심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사후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는 이만희 사후(死後)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²⁵³⁾ 내부에서는 이미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²⁵⁴⁾ 또한 이미 신천지 출신 인물들이 신천지와 유사한 교리를

251) 신천지는 2012년에 설교 중에 이만희의 여성문제를 발언한 목사들을 명예훼손죄로 범정에 고소하였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만희는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3년 11월 경, 이만희와 김남희의 별장동거 사진과 동영상 등이 공개된 이후에 신천지 측은 해당 목사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이 종료되었다.

252) 신천지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법으로 ‘비영리 종교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253) 영생활 것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죽고, 따라서 신천지가 몰락하게 되면 그 곳에 몸담았던 신도들이 유사한 이단종파로 이동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54)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신천지 압구정 신학원장이며 (사)만남 대표인 김남희이다. 그녀는 꽤나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으나 2004년에 신천지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

바탕으로 새로운 아류(亞流)들을 형성하고 있다.²⁵⁵⁾ 따라서 신천지가 쇠락 하더라도 그 아류들에 의해 촉발되는 문제들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신천지에 의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타종파의 이단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방해하는 갖가지 이단들에 맞서면서 교의를 정립하고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왔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가톨릭교회를 노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신자들이 신천지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신자들이 이단성이 분명한 신천지에 빠져들게 된 이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를 이탈하여 신천지에 빠진 이들은 대부분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 곳을 찾아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기성교회에는 설교에 성경말씀이 빠져있다’고 말한다. 신자들이 오류투성이인 신천지 교리에 쉽게 매혹되는 데에는 평소에 교회 안에서 성경과 교리를 정확하고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교회의 잘못도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꾸준히 교육하여 신자들이 이단 교리에 현혹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신천지에 빠진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출해내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의 세뇌교육에 의해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잡는 동시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또 앞으로도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들에 신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천지의 폐해는 교리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따라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포교활동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가출, 이혼, 학업 포기 등)²⁵⁶⁾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

255) “신천지 아류, 이만희 사후를 노린다”,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2월호, 54-59 참조.

256) 이 밖에도 신천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탈세 행위, 유령단체와 위장봉사단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위장행사, 신도들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비밀세뇌 교육, 학원법 위반 등이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 고발집회”,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2월호, 61-65 참조.

본고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교의신학적 비판만을 다루었다. 앞으로 교회 내에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등 가톨릭 신자들을 포교대상으로 삼아 접근하여 가톨릭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에 대해 교의신학적, 성서신학적, 사목신학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마태 24,4-5)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2테살 2,2-3)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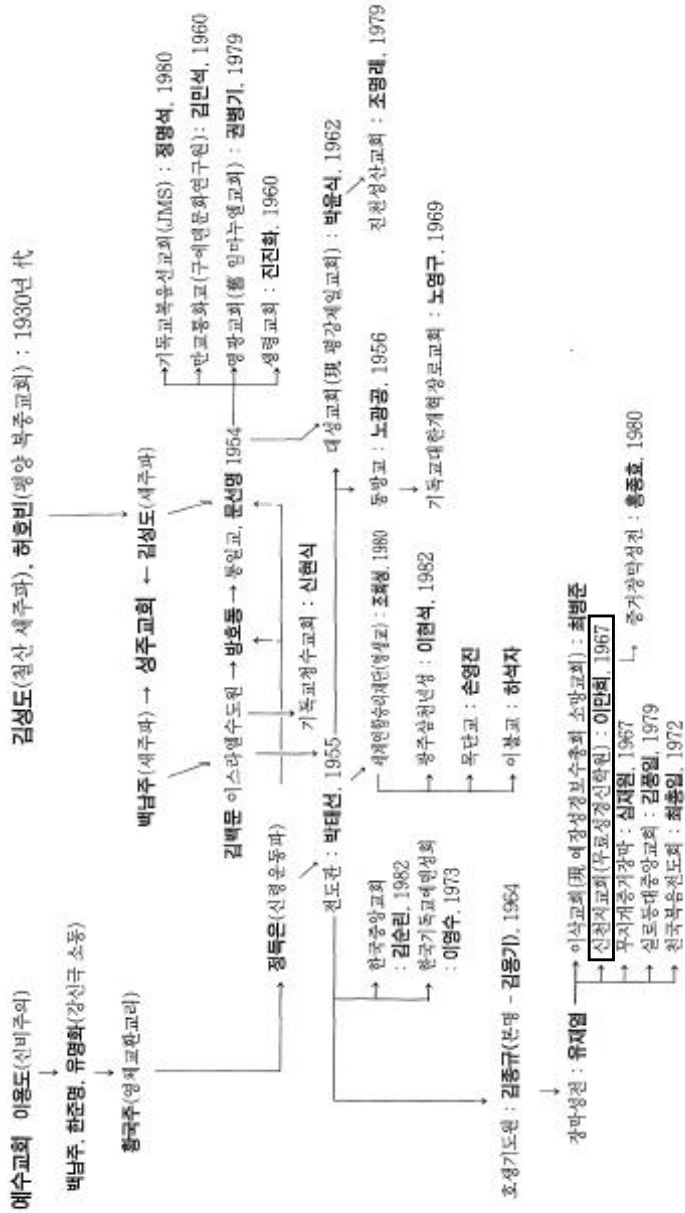
1. 한국 내 그리스도교 이단 계보도
2. 신천지 조직도
3. 신천지 신학원 교육 내용
4. 신천지 수료증, 새 언약서, 사령장
5.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시대별 구원자’ 교육용 그림
6. 신천지식 비유풀이
7. 신천지 전도 섭외 대상자 등급 기준표
8. 이만희 신격화 노래
9. 신천지인의 신앙고백

<부록 1> 한국 내 그리스도교 이단 계보도

<신흥종교 계보>

A. 한국기독교신비주의 계열

직통계시



* 연도는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도임

B. 기타 국내류파

※ 성리학교회(베뢰아귀신론) : 김기동, 1972

- 러미산교회(예일교회) : 이명범, 1961
- 한국예루살렘교회 : 이호석, 1984
- 부활의교회(그레이트아카데미) : 원민영, 1989
- 신혜원부활의교회 : 이태환, 1980 → 부산제일교회 : 박무수, 1982
- 변화산교회 : 이민희, 1996
- 서호제일교회 : 소계희, 1988

※ 여호와새일교단 : 이유성(이뢰자),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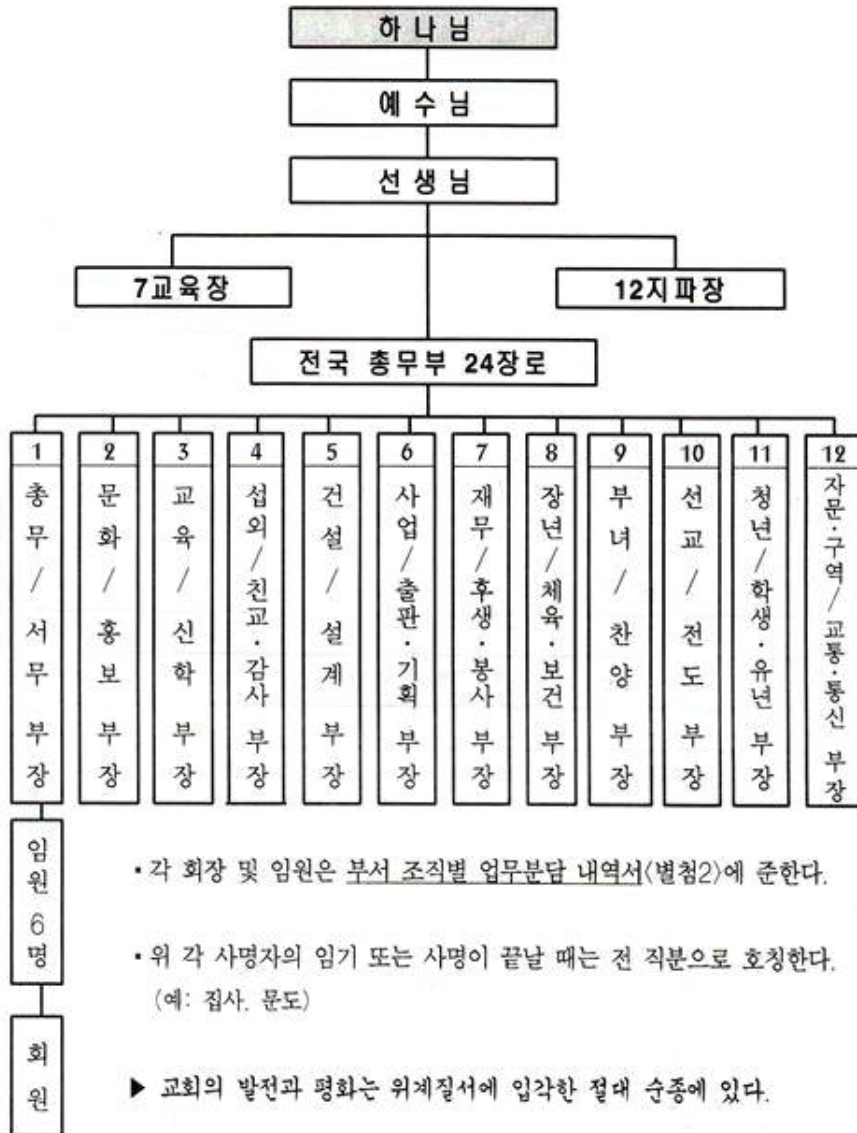
- 이유성 사망후(1972) 분파

- 새일중앙교회 : 유활천
- 새일중앙교회 : 안진대
- 한국중앙교회 : 이현삼
- 새일중앙교회 : 김학복 → 예루살렘교회 : 문재신
- 스톤비벨선교회 : 최대광 → 서온산 : 니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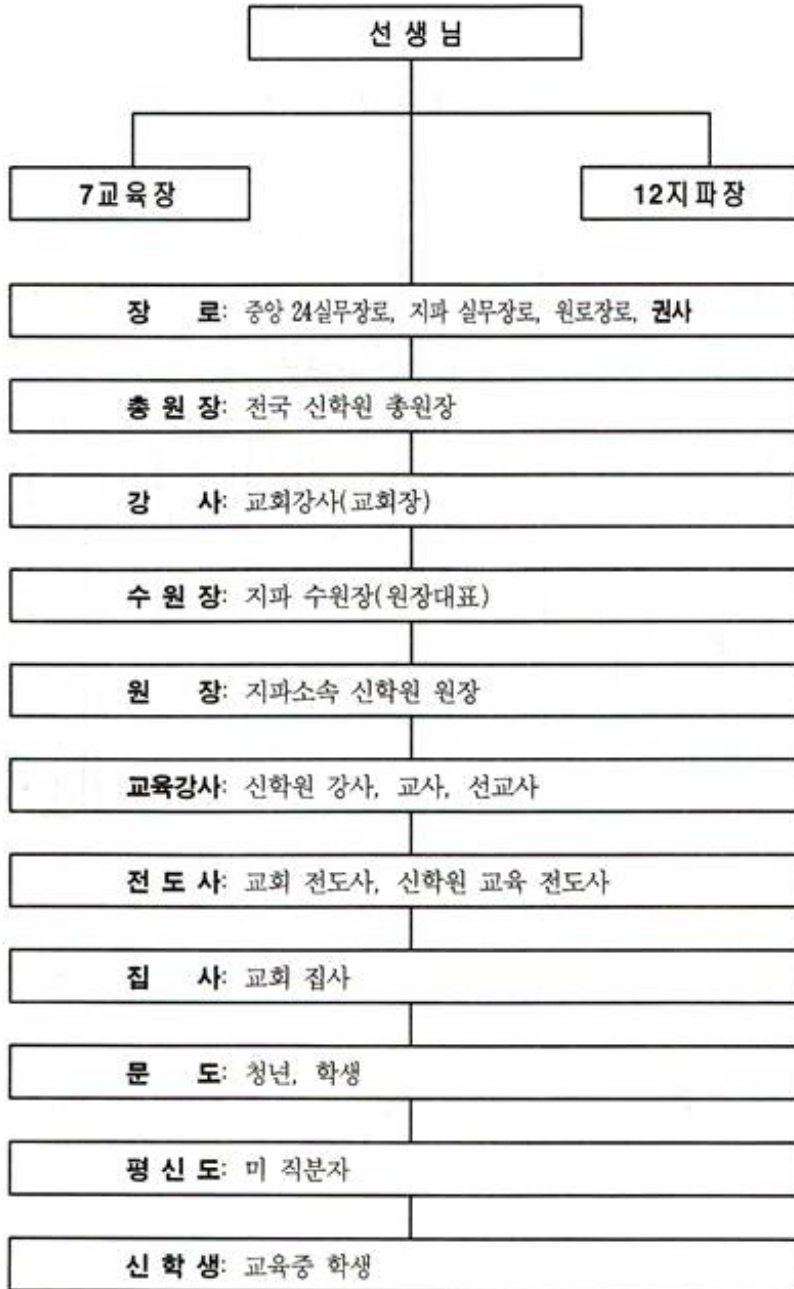
출처: blog.naver.com/onep3/60144963764 (검색일: 2013.12.4)

<부록 2> 신천지 조직도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 ①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 ②



• 신천지 위계질서는 위의 상, 하 직분 순리에 입각한다.

출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새신자 교육교재』, 도서출판 신천지, 1999, 별첨6-7.

<부록 3> 신천지 신학원 교육 내용

■ 초등

시대의 때를 분별하는 신앙인

성경개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

비유론 1과 성경과 비유

2과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3과 비유한 양식과 누룩

4과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5과 비유한 불, 향로, 가마

6과 비유한 빛, 등대, 소경, 귀머거리, 예복

7과 비유한 보물, 부자, 노래

8과 비유한 물, 샘 강

9과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10과 비유한 짐승, 머리, 뿔, 꼬리

11과 비유한 어린양의 피, 살, 포도주, 감람유

12과 비유한 산

13과 비유한 인, 나팔

14과 비유한 돌, 우상

15과 비유한 생물, 바람

16과 비유한 죽음, 무덤, 생기, 부활 / 생명의 부활과 첫째 부활

17과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

18과 비유한 예루살렘

19과 비유한 하늘, 땅, 해, 달, 별

20과 비유한 이스라엘

■ 중등

1과 창조, 언약, 배도, 심판

2과 재창조의 노정

3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고 성취되는 노정

5과 언약의 결과

6과 예루살렘 종말과 새 창조

7과 예레미야의 사명

8과 정통 대언의 목자

9과 뜨인 돌과 우상

- 10과 진리의 성읍 새 예루살렘
- 11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참 뜻
- 12과 비유한 천국 비밀
- 13과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
- 14과-15과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요건
- 16과-17과 약속한 처소와 다른 보혜사
- 18과 마지막 나팔과 부활
- 19과 세 가지 천국 비밀과 성사 순리
- 20과 도의 초보와 사이비 이단과 정통

■ 고등

요한 계시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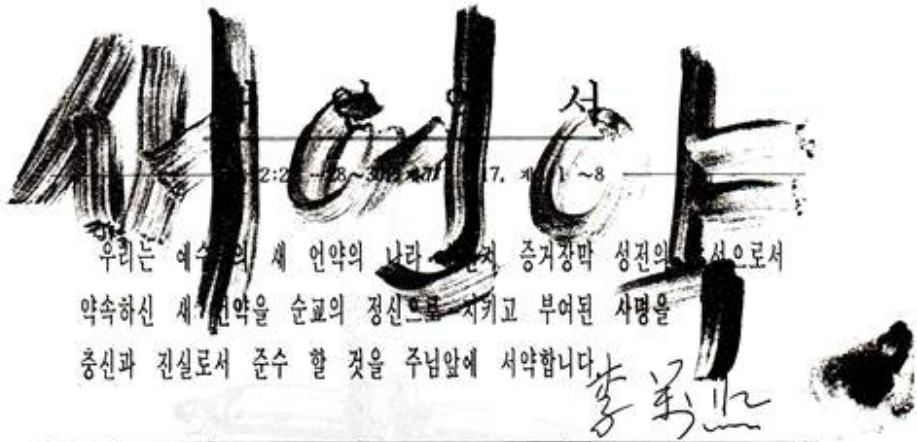
- 1과 예수의 계시와 속히 될 일
- 2과-3과 일곱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의 편지
- 4과 영계 하나님의 보좌 형상
- 5과 일곱 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책
- 6장 예수님께서 계시는 일곱 인
- 7과 인 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 8과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 9과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과 마병대
- 10과 하늘에서 온 열린 책
- 11과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 12과 하나님과 용과의 전쟁
- 13과 하늘 장막과 용의 무리 짐승
- 14과 시온산의 인 맞은 첫 열매 십사만 사천명
- 15과 짐승을 이긴 증거장막성전
- 16과 진노의 일곱 대접
- 17과 음녀와 짐승의 비밀과 심판
- 18과 심판받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
- 19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
- 20과 첫째 부활과 심판
- 21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 22과 열 두 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
- 23과 6일 창조와 제 7일 안식

<부록 4> 신천지 수료증, 새 언약서, 사령장



◆수료증

시온기독교 신학원 전 과정(초,중,고,수료시험)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총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수여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나라 안에서 증거장막 성전의 성도로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순교의 정신으로 지키고 부여된 사명을
 충신과 진실로써 준수 할 것을 주님앞에 서약합니다

No.	직 분	입교 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좌하 제22:1~5

◆새언약서

신천지 8년(1991년)부터 신천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지키고 부여된 사명을 준수할 것을 자필로 서약함

주: '새언약서'에는 교주 이만희의 피로 '새 언약'이라는 글자와 뒷면의 십자가
 를 그려놓았다.



<별첨 12>

출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새신자 교육교재』, 도서출판 신천지, 1999, 별첨 10-12.

<부록 5>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시대별 구원자’ 교육용 그림



그림 출처: <http://blog.naver.com/michael1450/110149215202>(검색일: 2013.12.4)

<부록 6> 신천지식 비유풀이

아래 내용은 신천지 성경공부 중 초등과정에서 배우는 비유론의 내용이다.

비유	의미	비유	의미	비유	의미
씨	말씀	물	말씀	생기	생명의 말씀
밭	사람의 마음, 교회	쌈	목자	죽음	영의 죽음
나무	사람	강	전도자	무덤	육체
가지	제자	바다	세상	부활	다시 산 영
잎	전도자	어부	전도자	신랑	영
열매	말씀과 성도	그물	말씀	신부	육
새	영	고기	성도	과부	영이 떠난 목자
양식	말씀	배	교회	고아	영적 부모가 없는 자식
누룩	교훈	짐승	하느님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예루살렘	천민의 나라
그릇	사람의 마음			바벨론	이방
저울	말씀	짐승의 세 분류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구원의 짐승	전쟁	영적 대적 증거
지팡이	말씀과 사람			병기	증거의 말씀
불	소명과 심판의 말씀	머리	지도자	하늘	장막
향로	사람의 마음	뿔	권세자	땅	육체
가마	교회	꼬리	거짓선지자	해	목자
빛	진리의 말씀	어린 양	예수님	달	전도자
어둠	비진리	피와 살	말씀	별	성도
눈, 등대, 촛불	영과 사람	포도주	말씀	이스라엘	이긴자의 이름
		감람유	증거의 말씀	시온	예수님과 거룩한 성
등불	말씀	산	교회	천국	생명의 씨로 된 나라
소경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인	말씀과 사람	지옥	가라지로 된 나라
		나팔	사람	열쇠	지혜
귀머거리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	돌	심판의 말씀과 사람	천국의 열쇠	천국 비밀을 여는 지혜
예복	옳은 행실	우상	거짓목자	지옥의 열쇠	사탄의 비밀을 아는 지혜
보물	말씀, 사람	생물 (네 생물: 천사장)	천군		
부자	자부심 많은자			바람	전쟁과 심판
노래	복음	이단	이단		
새노래	실상의 복음				

<부록 7> 신천지 전도 섭외 대상자 등급 기준표

구분	A급	B급	C급
교단	순복음, 감리	장로, 성결, 침례	이단, 무신앙
나이	30-50세	20-30세 50-60세	(가족 외) 10대, 60세 이상
신앙가족환경	집안호주	가족 중 단독신앙	교역자 가족
신앙년수	3-10년	10-30년	40년 이상
성경관심	통독 3-10회 예언내용	통독 3회 미만 보통	무관심
신앙동기	스스로	교회출석	타인의 권유
신앙목적	구원, 영생 100%, 천국	구원, 영생 50% 신학생, 기도원 설립	신학교 출신, 기도원 운영자
기도제목	천국, 영적성장	육적 축복	없음
건강상태	건강	보통	지병질환자, 장애인
직분	평신도, 집사	직책자	목사, 전도사
직종	개인사업	공직자, 회사원	다단계, 사채업
직장시간	자유자	수강시간에 적합	장시간 근무
경제환경	넉넉함	보통	궁핍자

주: 대개 C등급은 섭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 60대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천지의 그릇된 교회론을 엿볼 수 있다.

표 출처: <http://blog.naver.com/downwave/150051127400>(검색일: 2014.2.6)

<부록 8> 이만희 신격화 노래

다 감사해

최동선 작곡

다 감사 해 주 하나 님 다 감사 해 주 예수 님

다 감사 해 이 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 록 찬 송 하 리 라

<가사>

다 감사해 주 하나님 /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자 /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긴자'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이다.
신천지에서 '이긴자'는 이만희의 칭호이다.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프랑시스
망델로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소망이 선생님께 있네 / 생명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믿네 영원히 함께 할 선생님을

<가사>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소망이 선생님께 있네 / 생명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믿네 영원히 함께 할 선생님을

주: '선생님'은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부르는 칭호이다.

주 제	이긴자	작사자	부녀회 조@숙	일련 번호	22
제 목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네				
<p>1.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내주님 구원의 나팔되어 증거 하시니 귀있는 모든이들 찬송하여 따르네</p> <p>2.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내주님 진리의 말씀같이 증거 하시니 받는자 생명언어 기쁨으로 전하네</p> <p>3. 영생의 말씀되어 오신 내주님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 하시니 받은자 생령되어 만국 소성 이루네</p> <p>(후렴)</p> <p>시온의 성도들아 소리 높여 증거하세 은혜의 스승 보혜사 오셨네 구원의주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네</p>					

신원지배수교 부산야고보지와 새찬송가 편집위원회
종교장학실편

주 제	경배	작사자	부녀회 김@옥	연 권	18
제 목	하늘과 땅아 찬양하라			번호	
<p>1. 기뻐하세 하늘들아 생명주신 이긴자께 열두대문 문지기들 기쁨으로 땅을반대 땅과하늘 어우러져 어둔세상 불밝히고 우리수고 그치는날 우리모두 안식하세</p> <p>2. 감사하세 땅들이여 영생주신 보혜사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보혜사께 신천지의 별들이여 반짝반짝 비추이며 우리사명 끝나는날 제사장의 영광언네</p> <p>3. 찬양하세 하늘과땅 시온산의 구원주께 신천지의 해와별이 어둔세상 밝히므로 흑암천지 돌아와서 온세상이 낮이되네 속히오라 그날이여 시온산의 빛들에게</p>					

신천지예수교 부산야고보지과 새찬송가 편집위원회
증거장악성원

참고 문헌

1. 성경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_____, 『주석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 『신약성서』, 분도출판사, 1998.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대한성서공회, 1999.
_____,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61.
_____,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1998.
_____, 『성경전서 새번역 (표준새번역 개정판)』, 대한성서공회, 2001.
Aland. K., ed.,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y, 2001.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USCCB, 2011.

2. 교회문헌

- 베네딕토 16세,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안소근 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_____, 『계시 헌장』(*Dei Verbum*,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교회법전』(*Codes Iuris Canonici*, 198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 가톨릭 교회의 사말교리(四末敎理)』,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3. 이만희 저서 및 신천지 자료

- 김건남·이병희, 『神誕(신탄)』, 도서출판 신천지, 1985.
- 만국소성회, 『靈核(영핵)』, 도서출판 신천지, 1996.
- 이만희, 『계시』, 도서출판 신천지, 2005.
- _____, 『계시록 완전해설』, 도서출판 신천지, 2005.
- _____, 『계시록의 진상』, 도서출판 신천지, 1985.
- _____, 『계시록의 진상Ⅱ』, 도서출판 신천지, 1988.
- _____,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이루어졌다』, 도서출판 신천지, 2011.
- _____,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1995.
- _____,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1996.
- _____, 『예수그리스도의 행전』, 도서출판 신천지, 2006.
- _____, 『요한계시록의 실상』, 도서출판 신천지, 2005.
- _____, 『천지창조』, 도서출판 신천지, 2007.
- 신천지 문화부, 『신천지 발전사(화보)』, 도서출판 신천지, 1997.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새신자 교육교재』, 도서출판 신천지, 1999.
-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도서출판 신천지, 2010.
- _____,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Ⅱ』, 도서출판 신천지, 2010.
- 신천지 출판부, 『예언이 응한 실체와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신○○ 주장에 대한 바른 증거-』, 도서출판 신천지, 2007.
- 한순찰, 『종교세계의 관심사』, 도서출판 신천지, 1994.

○인터넷 자료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http://www.shincheonji.kr>
- 진짜바로알자 성경과 신천지 <http://cafe.daum.net/scjschool>

○비공식 문헌

- 신천지 총회 교육부, 『난해질문 모범답안』.
- 도마지파 전도기획부, 『난해질문과 해답』.
- 광주 베드로지파 교육부, 『난해 질문·문답 정리』.

4. 사전류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2013.
국어국문학회,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교, 2003.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한국가톨릭대사전』 제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한국가톨릭대사전』 제4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한국가톨릭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 단행본

- 김승혜 외 3명, 『한국 신종교와 그리스도교』, 바오로딸, 2002.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연구』, 경세원, 200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편,
『종합 이단·사이비 연구보고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박창진, 『신천지의 과대망상』, 진리와 생명사, 2013.
박형택, 『이단연구가가 정리한 요한계시록』, 합신이단사이비대책상담소,
2012.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 1997.
윌리엄 C. 웨인리치, 『요한묵시록』 교부들의 성경주해 신약성경14, 이혜정
역, 분도출판사, 2010.
윤민구, 『신흥 종교와 이단(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이대복, 『이단 종합 연구』, 큰샘출판사, 2008.
이만희·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단논쟁』, 도서출판 성산, 2002.
이브 콩가르,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1』, 백운철 역, 가톨릭출판사, 2004.
장운철,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 부흥과개혁
사, 2013.
전민수, 『왜 신천지는 2단인가?』, 영창서원, 2008.
정윤석 외 2명,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도서출판 한국
교회문화사, 2007.

- 정태현, 『성서입문 하권』, 한님성서연구소, 2008.
- 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 정체는?』, 성산, 1999.
- 최삼경 외, 『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기독교포털뉴스, 2013.
- 최삼경·정윤석, 『신천지 교리와 포교 전략』, 한국교회문화사, 2012.
- 탁명환, 『기독교 이단연구』, 국중출판사, 1986.
- _____, 『한국의 신흥종교Ⅲ(개정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92.
- 편집부, 『한국의 신흥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2002.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자료 Ⅱ』, 도서출판 한국교회문화사, 2007.
- 한창덕, 『사이비 이단과 신천지 I』, 바른말씀, 2011.
- _____, 『사이비 이단과 신천지 II』, 바른말씀, 2012.
- _____,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비판』, 새물결플러스, 2013.
- A. 지를란다, 『구약성경 입문2』, 성염 역, 바오로딸, 2010.
- A. 프란츠, 『세계교회사』, 최석우 역, 분도출판사, 2001.

6. 논문류

- 강신유, 『신천지 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 기향금, 『이단현상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성중,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 김중환, 『이단 교주의 ‘인간 보혜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천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 백동현, 『기독교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신천지의 보혜사 성령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11.
- 이정은, 『신천지 신자들의 개종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임웅기, 『한국 개신교계 신흥종교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최인애, 『이단 신천지의 천국 비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7. 정기간행물

- 신현욱, “신천지 완전해부(1)”,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월호, 70-73.
_____, “신천지 완전해부(2)”, 『월간 현대종교』 2013년 2월호, 48-51.
_____, “신천지 완전해부(3)”, 『월간 현대종교』 2013년 3월호, 63-69.
_____, “신천지 완전해부(4)”, 『월간 현대종교』 2013년 4월호, 100-103.
_____, “신천지 완전해부(5)”, 『월간 현대종교』 2013년 5월호, 75-79.
_____, “신천지 완전해부(6)”, 『월간 현대종교』 2013년 6월호, 65-73.
심우영, “신천지교회 요한의 실상”, 『월간 현대종교』, 1999년 6월호, 84-87.
이덕술, “최근 신천지의 변화와 전망”,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월호, 42-45.
조민음, “신천지 아류, 이만희 사후를 노린다”,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2월호, 54-59.
조민음,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 고발집회”, 『월간 현대종교』, 2013년
12월호, 60-65.
지명환, “신천지의 교리 변개”, 『월간 현대종교』 2012년 11월호, 50-56.

8. 인터넷 자료

-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http://www.jesus114.net>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
신천지 OUT (CBS) <http://antiscj.cbs.co.kr>
바로알자 신천지 <http://www.antiscj.net>
안티 블로그 <http://blog.naver.com/knw1022>
<http://blog.naver.com/downwave>
<http://macodo777.blog.me>
<http://blog.naver.com/bluesky05292>

<http://blog.naver.com/enjoy513>

9. 기타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 『신흥종교단체 ‘신천지 교회’에 관하여』, 2013.

천주교 전주교구 이단 신천지 대책위원회, 『신흥종교단체 ‘신천지 교회’에 관하여』, 2013.

천주교 전주교구 이단 신천지 대책위원회, 『‘신천지 교회’에 관한 2차 자료집』, 2013.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2012.11.26)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2013.04.22)

《Abstract》

Dogmatic Criticism of
*‘Shinch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Bak Min Ho

Department Systematic Theology
Graduate School of Gwangju Catholic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ok Tae

Problems from *‘Shinch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Shinchonji*-new heaven and new earth) have been frequently issued in and out of the church. *Shinchonji* approaches the people as an excuse of studying the Bible and infuses them with absolutely different doctrine from a Christian faith.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Shinchonji* doctrine through its dogmatic criticism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and catholic church.

Shinchonji doctrine is based on dualism of ‘flesh - spirit’, ‘good - evil’ and divides the era of the Bible randomly and sets the present age as ‘the age of Second Advent’ or ‘that of completion of Revelations’. *Shinchonji* starts from the doctrine that God chooses the savior by the times and repeats creation and recreation with the flow of ‘betrayal-ruination-salvation’. But, such a premise itself is non-biblical and non-christian from the beginning.

Shincheonji doctrine was based on the ‘revelation’ that its leader, Lee Man Hee, received, but the revelation was not true one in light of Christian revelation. The substance of ‘real image of The Revelation to John’ he saw directly was a series of events occurred at Yoo Jae Yeol’s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that Lee Man Hee belonged to and it fit the contents of Revelation to John to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grudgingly and even it was based on the fabricated contents.

In addition, *Shincheonji* insisted that “words in the Bible have the corresponding words, respectively” and interpreted the Bible through so-called ‘interpretation of analogy’, but it is a wrong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hich drew absolutely different results from its intention.

From the view of Christology, *Shincheonji*’s argument that God chose human Jesus as a savior of that time has a similarity to Adoptionism which was the heresy of early Christianity. Furthermore, *Shincheonji* deified Lee Man Hee as the savior of the last age or ‘promised pastor’ predicted in the New Testament who is in the equal position to Jesus through the doctrine of ‘Shepherd by the times’. Such a deification of the leader of *Shincheonji* sect is the ultimate purpose of *Shincheonji* doctrine.

According to the Pneumatology of *Shincheonji*, they understood the Holy Spirit merely as ‘divine spirit’ and argued that the spirit of angel and martyrs is also the holy Spirit. Moreover it divided the Holy Spirit into ‘general holy spirit’ and ‘helper Spirit’(paracletos) arbitrarily and interpreted ‘paracletos’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tically and considered its leader Lee Man Hee ‘the physical helper’ with ‘helper Spirit’. It is the wrong argument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Christian faith or doctrine of the Holy Spirit.

Wrong Christianity and pneumatology of *Shincheonji* also affected Trinitarianism. But, Trinitarianism of *Shincheonji* that understands being

three objects in one body as the trinitarianism is totally different from Christian Trinitarianism that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is one God who has the same nature in three hypostasises. *Shincheonji* argued that after Jesus ascended to heaven, God as the Holy Trinity cannot exist and it can be established only in 'the Winner'(Lee Man Hee). Thus *Shincheonji* is the heresy that denies the Christian Trinitarianism.

Shincheonji made a different claim from the Bible or Christian doctrine in its soteriology and eschatology. *Shincheonji's* soteriology stated that salvation could be offered only by learning the revelation Lee Man Hee received and knowing the secret of the Bible. It cannot be compatible with Christianity arguing that salvation comes through Jesus Christ. Doctrines of 'betrayal-ruination-salvation' and 'unification with ghost and eternal life of flesh' by *Shincheonji* were based on the wrong interpretation of Book 2, Ch. 2 of Thessaloniki and Ch. 20 of Revelation to John and doctrine of '144,000 members' was also wrong doctrine which accepted Ch. 7 of Revelation to John literally.

Shincheonji doctrine showed errors in all areas ranging from its framework to Revelation, Christology, Pneumatology, Trinitarianism, Soteriology and Eschatology. In particular, *Shincheonji* doctrine was very similar to the doctrines of existing heresy or pseudo-religion sects and all doctrines had intention to deify its leader Lee Man Hee. Therefore, *Shincheonji* is clearly heresy and pseudo-religion.

All kinds of heresy and pseudo-religion sects from home and abroad threaten church. In this situation, the church must educate the Bible and doctrine to its members and make them alert to approach by heresy and pseudo-religion sects. Also it must introspect why its members leave the church and join a cult, and make efforts to protect Catholicism and its members by researching heresy and pseudo-religion sects from various angles.